

최일준

Iljun Choi

목차

content

3      실재와 왜곡 사이를 뒹굴며  
Wallow  
  
최소한에 관한 사유로부터 — 성다솜  
from thinking for minimum — Dasom Sung

37     붉은 덩어리  
Red Lump  
  
최일준: 붉은 덩어리 — 도화진  
Iljun Choi: Red Lump — Hwajin Do

67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From Unseen Power  
  
최일준: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 도화진  
Iljun Choi: From Unseen Power — Hwajin Do

97     협업 프로젝트  
Cooperation Project  
  
앤-온-콘택트 N-ON-Contact  
병풍풍경 Screen Scene  
문화의 드로잉 Drawing on the Culture

104    작가 약력  
Artist CV

실재와 왜곡 사이를 뒹굴며

Wallow

2020 - 2022

## Wallow

:실재와 왜곡 사이를 뒹굴며

지난 연작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붉은 덩어리>는 나의 결여와 관련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쫓으면서 결여를 채우려 하거나 신체의 미묘한 상처를 관찰하고 내면의 붉은 덩어리들을 바라보면서 치유시키려는 것이었다. 그 결여는 이상, 특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주변이나 동시대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었다.

결여를 해소하기 위해 나는 무언가의 실재에 다가가려고 한다. 내가 실재에 다가가는 방법은 물질을 오감으로 느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가령 자동차의 경우, 움직인다는 자동차의 본질적인 속성이나 아름다운 형태, 브랜드 이미지가 담긴 엠블럼보다는 고장 난 것들을 하나씩 고치며 그 자동차에 대해 하나씩 알게 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나를 만족스럽게 하고 평온하게 한다.

최근 금속 분말을 안료로 한 작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금속 분말 중에서도 근작은 탄산동, 산화니켈, 탄산코발트, 산화코발트, 염화코발트, 산화알루미늄, 산화크롬을 주로 사용하였다.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된 금속 분말들을 작업에 활용하면서 온도, 습도에 따른 성질의 변화, 서로 다른 금속 입자가 시각적으로 합금되면서 나타나는 질감과 색감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금속이라는 물질을 최대한 온전히 감각하고 경험함으로써 실재에 다가가고자 한다.

실재란 무엇일까. 물질의 근원은 무엇일까. 양자역학에 따르면 물질은 관측(결맞음)되기 전에는 입자가 아닌 파동이며 인간의 몸조차도 파동이다. 이 때문에 양자역학에 대한 한 쪽 견해에서는 눈으로 감각하는 순간 그 빛이 대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양자역학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지만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남긴 한 가지 말에 모두 공감한다. ‘이 세상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양자역학은 수학적으로 모두 증명 가능하지만 인간이 감각하는 세계의 영역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

과학적 시각에서 물질은 곧 원자이다. 원자를 이루는 전자의 움직임을 다루는 양자역학을 적어도 지금까지 인간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오감으로는 ‘실재’의 개념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하다. 코펜하겐 해석을 만든 닐스 보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로지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 우주의 현상을 설명할 언어와 개념과 경험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뿐, 우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처럼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은 실재와 다른 왜곡, 착각으로 난무한다.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 여러 종들 중에서도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주인이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종이었기 때문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주장한다. 왜곡과 착각은 본래 그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인간의 감각영역에서만큼은 그것이 곧 실재이며, 상상과 창의, 새로운 가능성의 재료가 된다.

나는 필연적으로 실재를 왜곡하여 감각하고 이를 통해 실재와 왜곡이 뒤섞인 풍경을 그린다. 오감이 연결된 공감각과 이를 넘어선 새로운 감각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 속에서 조금씩 더듬어가며 무언가에 맞닿아보려고 한다. 그렇게 맞닿은 것은 결국 또 다른 왜곡이겠지만, 어쩌면 내가 애타게 찾던 진짜 실재, 혹은 기존에 실재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영역의 실재이지 않을까.



Wallow 7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powder on canvas

112.1x145.5cm, 2020



Wallow 9

$\text{CoCO}_3$ ,  $\text{NiO}$ ,  $\text{Cr}_2\text{O}_3$ ,  $\text{CuCO}_3$ ,  $\text{Al}_2\text{O}_3$  powder on aluminium

72.7x90.9cm, 2020



Wallow 10

CoO,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aluminium, 72.7x90.9cm, 2020



Wallow 10

CoO,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canvas

65.1x53cm, 2020





Wallow 3

$\text{CoCO}_3$ ,  $\text{NiO}$ ,  $\text{Cr}_2\text{O}_3$ ,  $\text{CuCO}_3$  powder on canvas

65.1x53cm, 2020



Wallow 5

$\text{CoCO}_3$ ,  $\text{NiO}$ ,  $\text{Cr}_2\text{O}_3$ ,  $\text{CuCO}_3$  powder on canvas

90.9x65.1cm, 2020



Wallow 1, 2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powder on canvas  
31.8x40.9cm, 2020



Studies on Willow 47, 59  
CoO,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paper 21x28.3cm, 2020



Studies on Wallow 41, 46  
CoO,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paper, 21x28.3cm, 2020



Studies on Wallow 39, 40  
CoO,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canvas, 20x20cm, 2020



Studies on Wallow 35, 32  
CoO,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canvas, 20x20cm, 2020



Studies on Wallow 31, 36  
CoO,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canvas, 20x20cm, 2020



작품의 특정 부분은 습도에 따라 푸른빛과 보랏빛을 오가며 변화한다.

Certain parts of the work change between blue and purple depending on humi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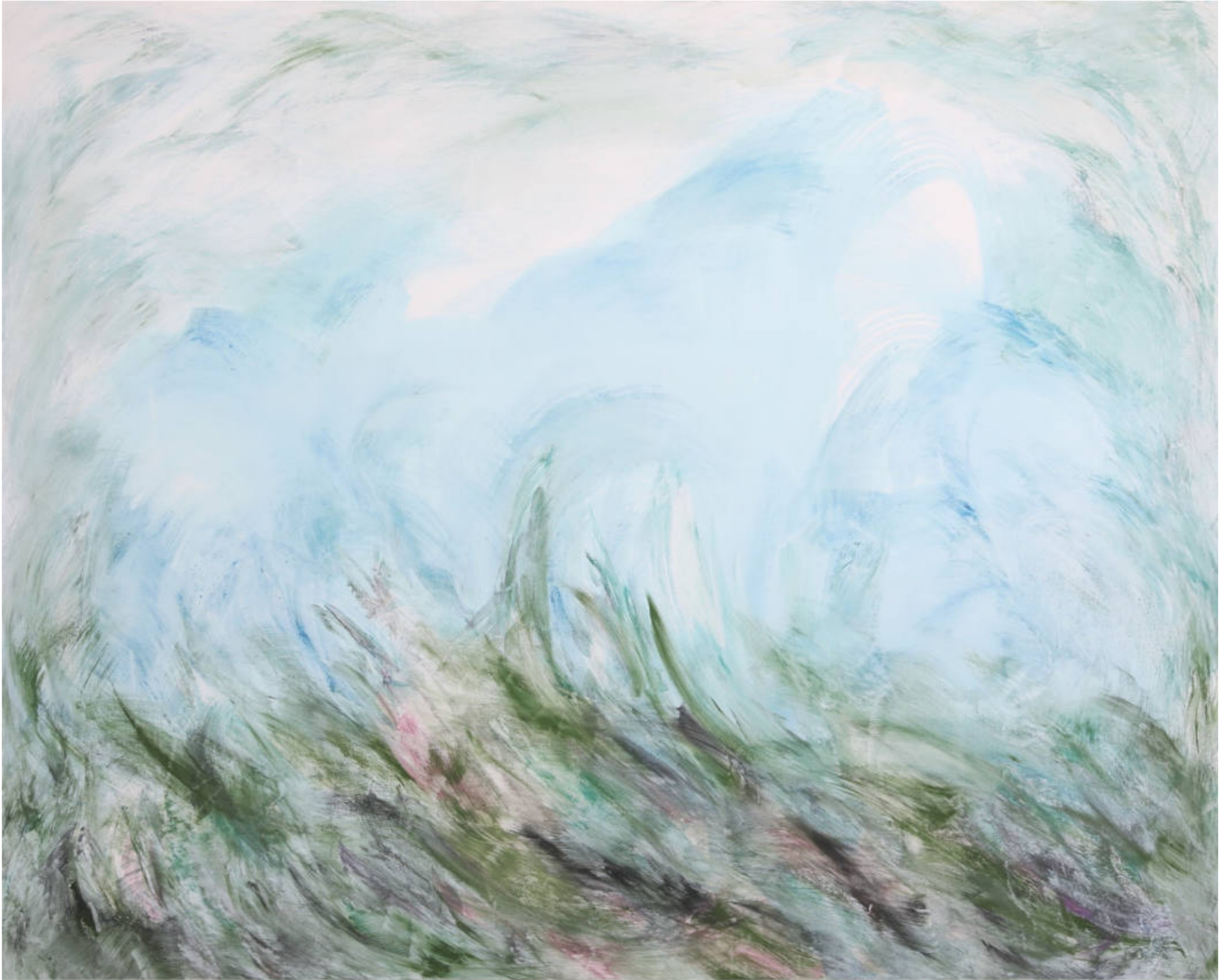
Wallow 6 (low humidity)

$\text{CoCl}_2$ ,  $\text{CoCO}_3$ ,  $\text{CuCO}_3$  powder on canvas

112.1x145.5cm, 2020



Wallow 6 (high humidity)  
CoCl<sub>2</sub>, CoCO<sub>3</sub>, CuCO<sub>3</sub> powder on canvas  
112.1x145.5cm, 2020



Wallow 8, CoO,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canvas, 162.2x130.3cm, 2020 (low humidity)



Wallow 8, CoO,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canvas, 162.2x130.3cm, 2020 (high humidity)



Studies on Willow 20, 6  
CoO,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paper, 28.3x21c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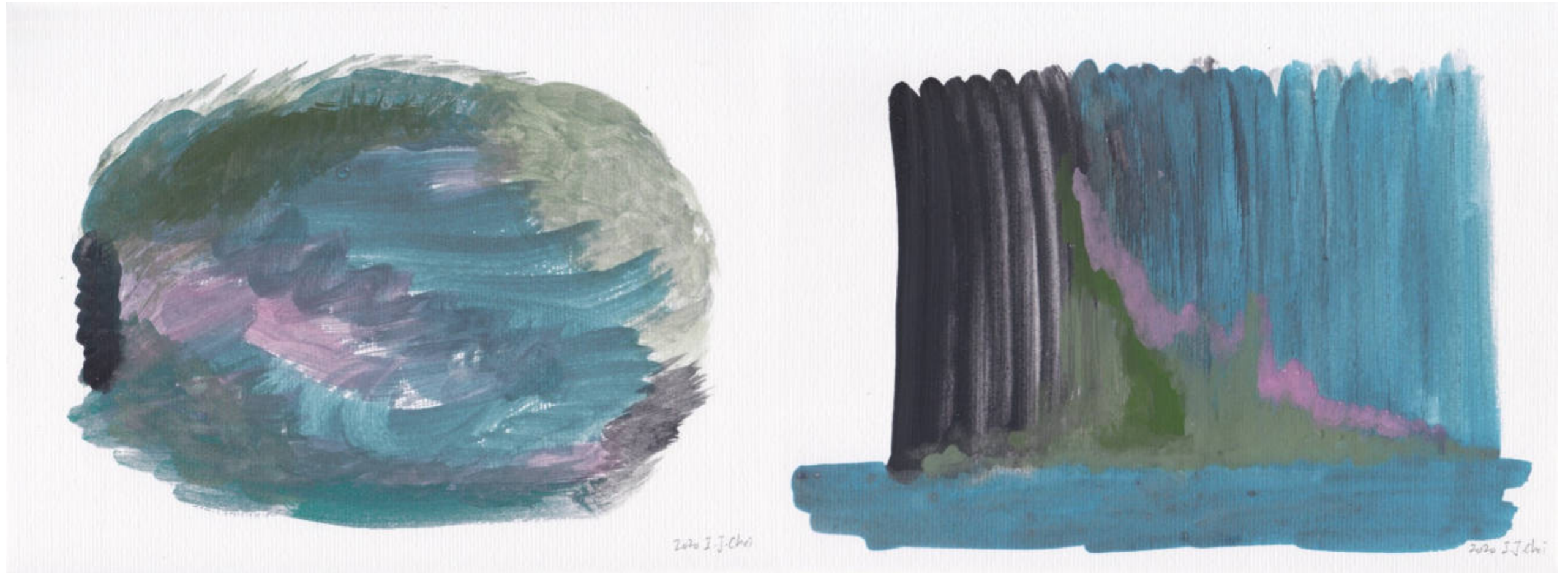


Studies on Wallow 20, 6  
CoO,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paper, 28.3x21cm, 2020



Studies on Wallow 22, 15  
CoO,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paper, 28.3x21cm, 2020





Studies on Wallow 22, 15  
CoO,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paper, 28.3x21cm, 2020



Wet Lab (low humidity)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stainless steel

94x117cm, 2022



Wet Lab (high humidity)  
CoCl<sub>2</sub>, CoCO<sub>3</sub>, NiO, Cr<sub>2</sub>O<sub>3</sub>, CuCO<sub>3</sub>, Al<sub>2</sub>O<sub>3</sub> powder  
on stainless steel  
94x117cm, 2022

전시 전경

Exhibition Foreground

















최소에 관한 사유로부터

드로잉은 손 가는 대로 자유롭게 생각의 밑바탕을 그려내는 것이다. 드로잉은 계획보다는 즉흥성에 의지하기에, 작가의 심상을 자유롭게 그려내기 용이한 방편이 된다. 최일준 작가는 2020년 개인전 <Wallow>에서 붓 가는 대로 칠해진 색 면들을 통해 어딘가 자연의 모습을 은유해 낸다. 예측할 수 없이 밀려닥친 팬데믹의 여파로 이동이 한정된 오늘날, 작가는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풍경에 상상을 더해 그간 마음에 담아 둔 자연을 떠올리며 화면을 채웠다. 거칠게 채워진 화면은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그곳에서 그가 느꼈던 마음의 평안 등 추상적인 감정들이 얽혀있다. 여기서 화면에 담긴 서사적 의미보다 최일준 작가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작가가 발견해낸 금속의 성질이다. 금속공예를 전공한 작가는 철 단조를 이용하여 과감한 입체물을 제작하였으나, 한정된 환경에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입체물의 부피와 무게감에 부담을 느끼고, 작업의 원점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는 금속을 이루는 원초적인 재료와 입체를 만들어내는 평면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공예가는 자신의 손으로 정성 어린 노동을 통해 직접 재료를 가공하여 작업을 완성 해내지만, 이는 작가가 광석에서부터 원료를 분리하여 금속 판을 만들어내는 모험까지 감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속 작업은 일반적으로 재료상에서 판매하는 정형화된 판형에서 시작된다. 작가는 정해진 범주의 기존 재료에서 벗어나 금속 그 자체를 탐구하고자 한다. 작가의 즉흥적인 드로잉은 비로소 여기서 의미를 갖는다. 작가에게 드로잉은 사전에 엄밀한 계획을 요하는 단단한 재료로부터 자유로운 표현으로 전환하는 선언이 된다. 재료와 물성 자체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면서 작가는 아주 작은 분말 가루 형태인 금속 산화물에서부터 금속성의 원재료를 생각하고, 이를 평면에 발라보기 시작했다. 입체나 판 형태가 아닌 분말 형태는, 부피도 두께도 무게도 가지지 않지만 여전히 금속이다. 금, 은, 적동, 황동, 알루미늄 등 인간의 힘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금속들은 제한된 색상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 상태의 원재료에 가까운 금속 산화물은 다양한 색을 선보인다. 금속 분말들은 아직 연성과 전성을 갖는 고체 형태로 정착되기 이전의 자유로운 형태이며, 놀라운 가능성의 세계를 내포하고 있다. 작가가 평면에 펼쳐내는 드로잉은 이 작은 세계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작업 방식을 전개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한다. 금속 산화물은 공간의 습도에 따라 캔버스 위에서 색이 변하기도 하고, 붓질을 주저하는 순간 덩어리가 뭉치기도 한다. 이 모든 변수는 작가가 재료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과도 같다. 금속은 주로 판금이나 주조 등의 방식을 통해 입체로 그 물성을 드러내고 형태를 이루었지만, 최일준 작가의 금속-평면-드로잉에서 금속은 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미지가 된다. 시각적 표면은 색 면 드로잉과 페인팅의 사이에서 붓질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되고, 금속 산화물의 작은 알갱이는 표면 위에서 금속성의 재료적 성질을 던지시 보여준다. 드로잉은 무언가를 표현해 내기 위한 즉흥적인 선행 단계이며 또한 무언가가 구체화되기 이전의 스케치이다. 작가는 드로잉 작업을 통해 금속을 새로운 각도에서 섬세하게 연구하며 그간 미미하게 인식되었던 금속 색상의 물성을 구체화시킨다. 작가의 여정은 최소의 단위에서 시작하여 금속 재료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 더 넓은 면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 성다솜

붉은 덩어리

Red Lump

2019

## 붉은 덩어리

깊은 생각에 잠기고 나면 손톱 주변과 입술이 찢어지고 갈라진다. 상처 난 붉은 살점들은 계속 따끔거리지만 그럴수록 더 만져지고 뜯어진다. 잊고 지내다 보면 그곳엔 어느새 다시 새살이 올라 매끈하게 채워진다. 하지만 곧 찢어진 살점들이 다시 붉게 아릴 것이다. 불안한 감정은 어디서 부터 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특히 특정한 사건없이 스며든 그 감정은 그 시작을 알기 더욱 어렵다. 이유 모를 초조함에 계속 스스로를 조금 뜯어내고 다시 희생시킨다.

벌레에 물린다. 붉게 종기가 올라온다. 한참 가렵다. 멈추지 않는 가려움에 뽀족이 긁어 피가 나면 딱딱한 갈색으로 아문다. 없어지는 듯하다 다시 붉게 도드라진다. 이내 가라앉으며 하얗게 아문다. 그러나 다시 물리면 여지없이 붉은 종기가 올라올 것이다. 벌레에 물리고 치유되듯 일상 속에는 누군가의 눈빛, 말한마디, 몸짓, 대중매체의 이미지와 소리들과 같은 작은 균들이 침투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아주 잠깐인 동시에 반복적으로 스며드는 그것들은 가렵고 귀찮은 고통과 상처를 유발하고 끝내 작은 출혈 동반해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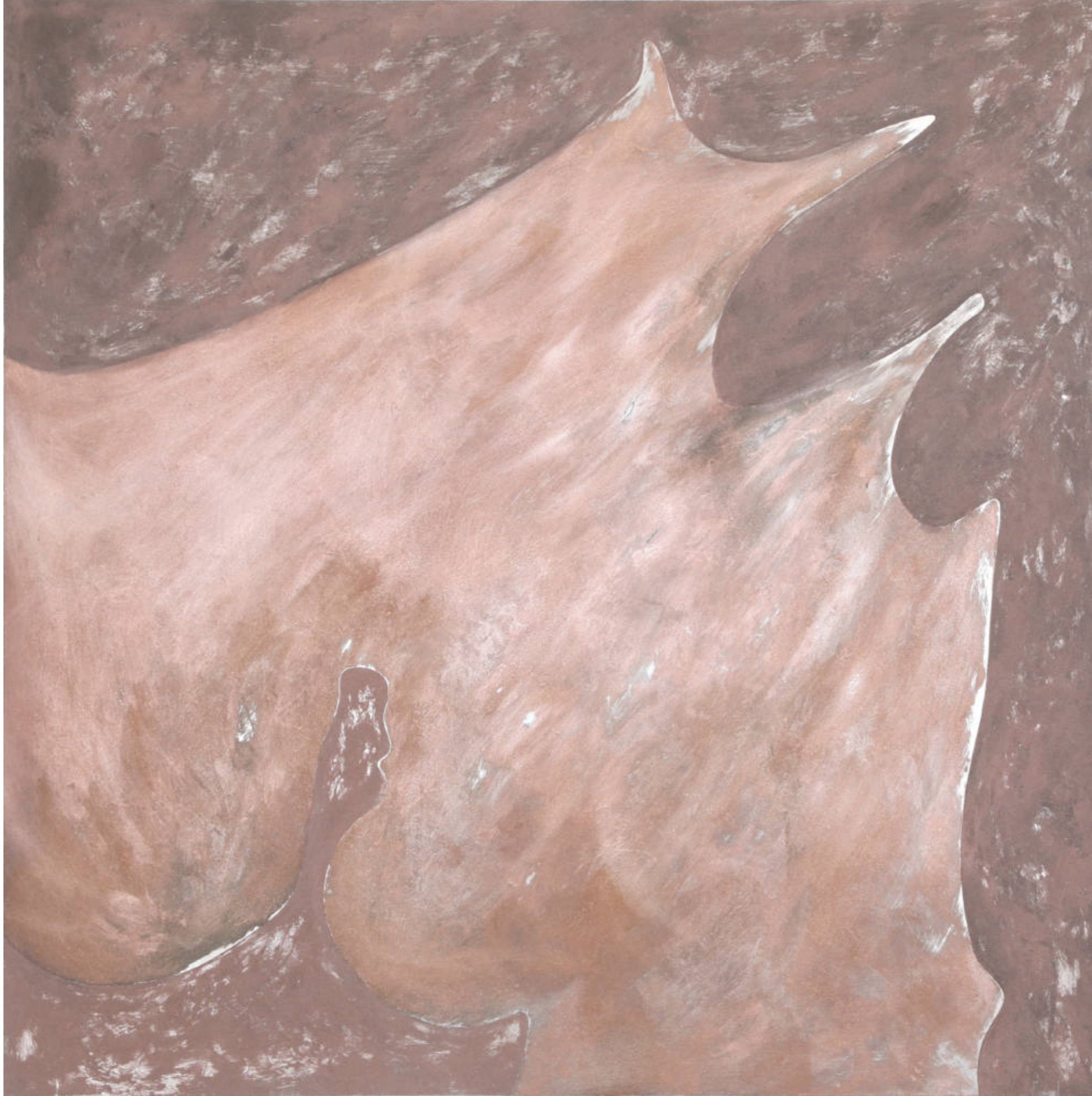
내외부의 영향으로 생기는 신체의 미묘한 상해와 치유 속에서 내면의 붉은 덩어리를 본다. 스스로와 타인, 대중매체로 부터 유발된 영향들은 하나씩은 작지만 무수히 반복되어 서서히 그 몸집을 키운다. 그 힘을 작은 것으로 치부하는 관조적 태도는 자신도 모른 채 감정적 덩어리들을 내면 깊숙이 쌓아둔다. 그 붉은 덩어리들을 꺼내어 인지하지 못했던, 외면했던 불안과 고통을 그린다.

## Red Lump

The skin around my nails and lips tear and break after I immerse myself in deep thoughts for some time. The teared red wound tingles but I keep touching and tearing them. New skin grows and fills the wound once again without me noticing. However the torn skin will turn red and tingle again any time soon. It is difficult to know where this anxiousness is coming from. It is hard to know the origin especially when the emotion is permeated without a specific incident. Parts of my body is torn and regenerated little by little, because of the uncertain anxiousness that I feel.

A bug bites me. A red boil is made. It is quite itchy for a long time. After being scratched and picked at repeatedly, it bleeds and is covered by a brown scab. It looks like it is going to heal but soon turns red. Eventually the color turns bright when it's perfectly healed. However when bit by another bug, the red boil will rise again. Just like the process of getting bit and healing again, tiny germs such as people's gaze, words, gestures, and images and sounds from the media infiltrate and disappear from our body repeatedly in our everyday life. Though it is a very brief moment, these repeatedly coming germs always leave marks after some bleeding with itchy and bothersome pain while it goes away.

In this process of subtle injuries and healing of the body caused by internal and external influences, I recognize the red lumps inside me. The small and never ending influences caused by oneself, others, and the media grow its size gradually. The more I try to dismiss the power of those influences, the deeper the emotional lumps are accumulated inside me. What I do is taking out these red lumps inside me, and drawing the anxiety and pain that I didn't realize or turned away.



Red Lump 10  
iron, copper, aluminium powder  
on stainless steel  
100x100c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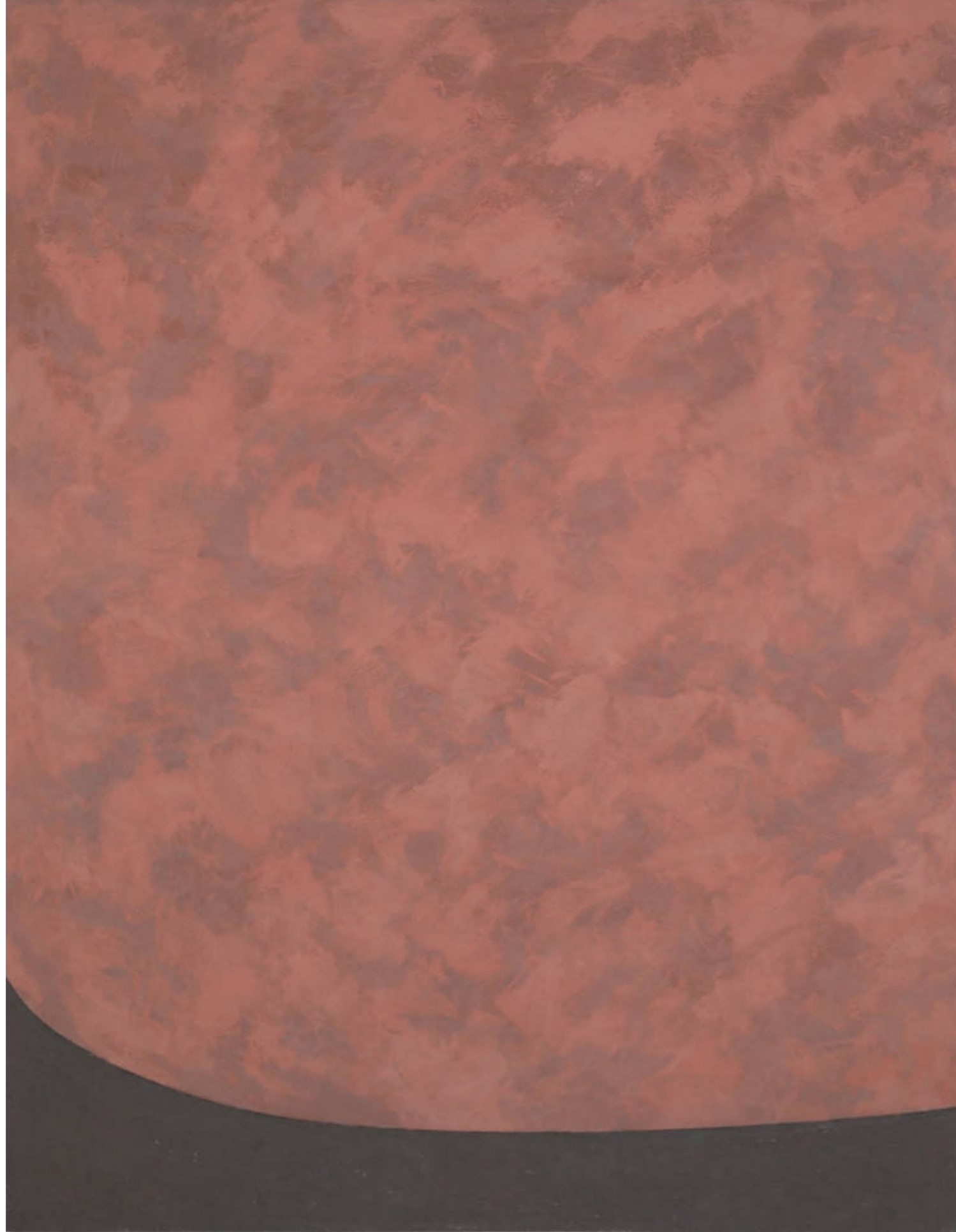




Red Lump 2  
iron, copper, powder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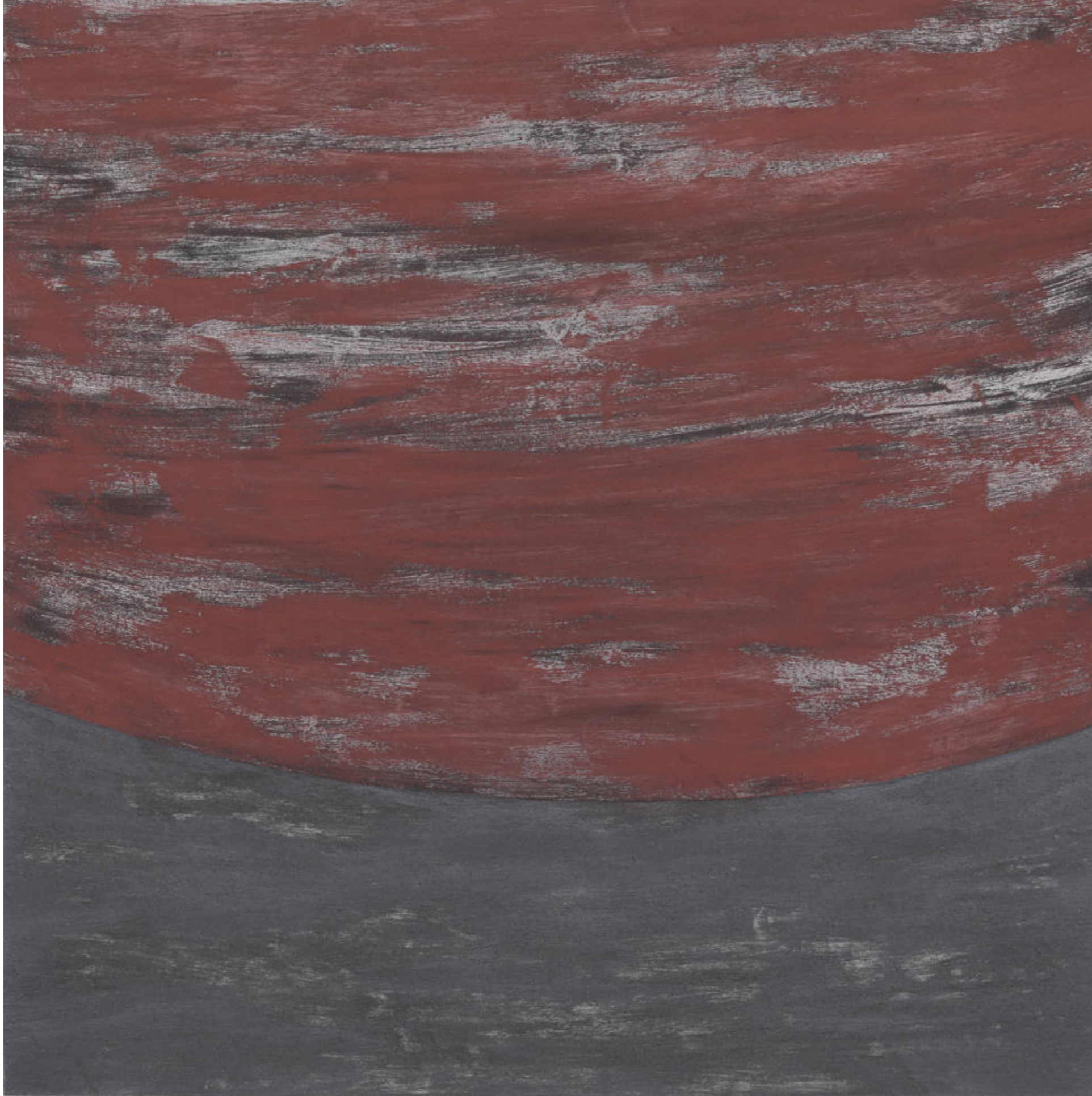
Red Lump 1  
iron, copper, powder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9



Red Lump No.3  
iron, copper on stainless steel  
938x116.8cm, 2019



Red Lump 4  
iron, copper, aluminium powder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9



Red Lump 6  
iron, copper, aluminium powder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9

작품에서 드러나는 색과 질감은 금속 고유의 것이다. 나는 작품이 금속 고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조각이나 부조가 아닌 하나의 이미지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속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작고 부피감이 없는 가루의 형태를 이용한다.

The colors and textures that appear in the work are unique to the metal. I try to make my work a single image, not a sculpture or relief, while maintaining the unique properties of metal. For this reason, the powder form without the smallest volume that can be present in the metal is utilized.



Red Lump 12  
iron, copper, aluminium powder  
on stainless steel  
100x86.3c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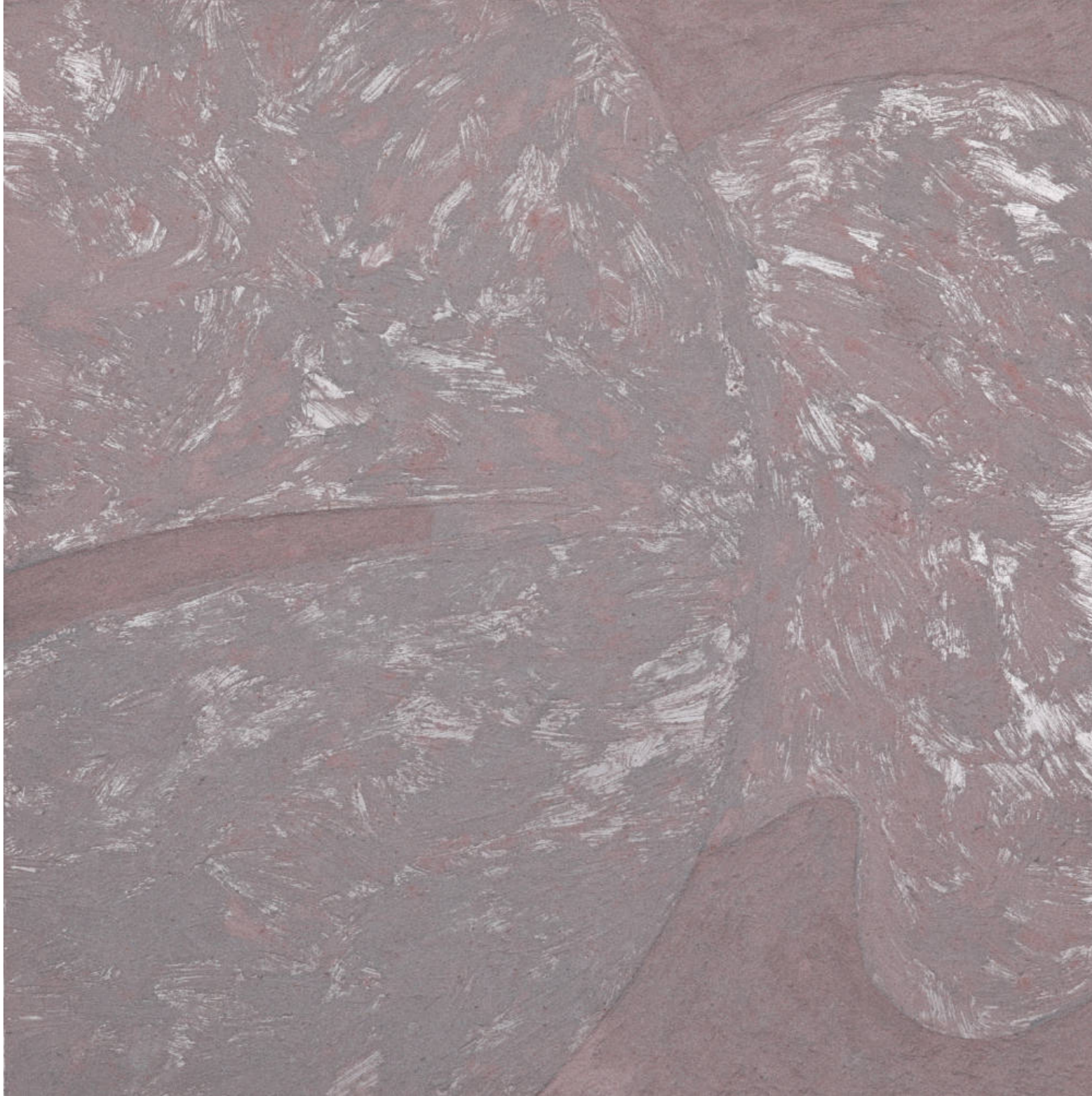
Red Lump 8

iron, copper, aluminium powder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9





Red Lump 7  
iron, copper, aluminium powder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9



Red Lump 11  
iron, copper, aluminium powder  
on stainless steel  
100x100cm, 2019

붉은 덩어리에 대한 습작은 신체의 미묘한 상해와 치유를 관찰하는 작업이다.

Studies on Red Lump are the works of observing subtle injuries and healing of my body.



Studies on Pod Lump 1

2019 I.J. Choi



Studies on Red Lump 6

2019 I.S. Choi



Studies on Bed Lump 7

2014 I.J. Choi





Studies on Red Lum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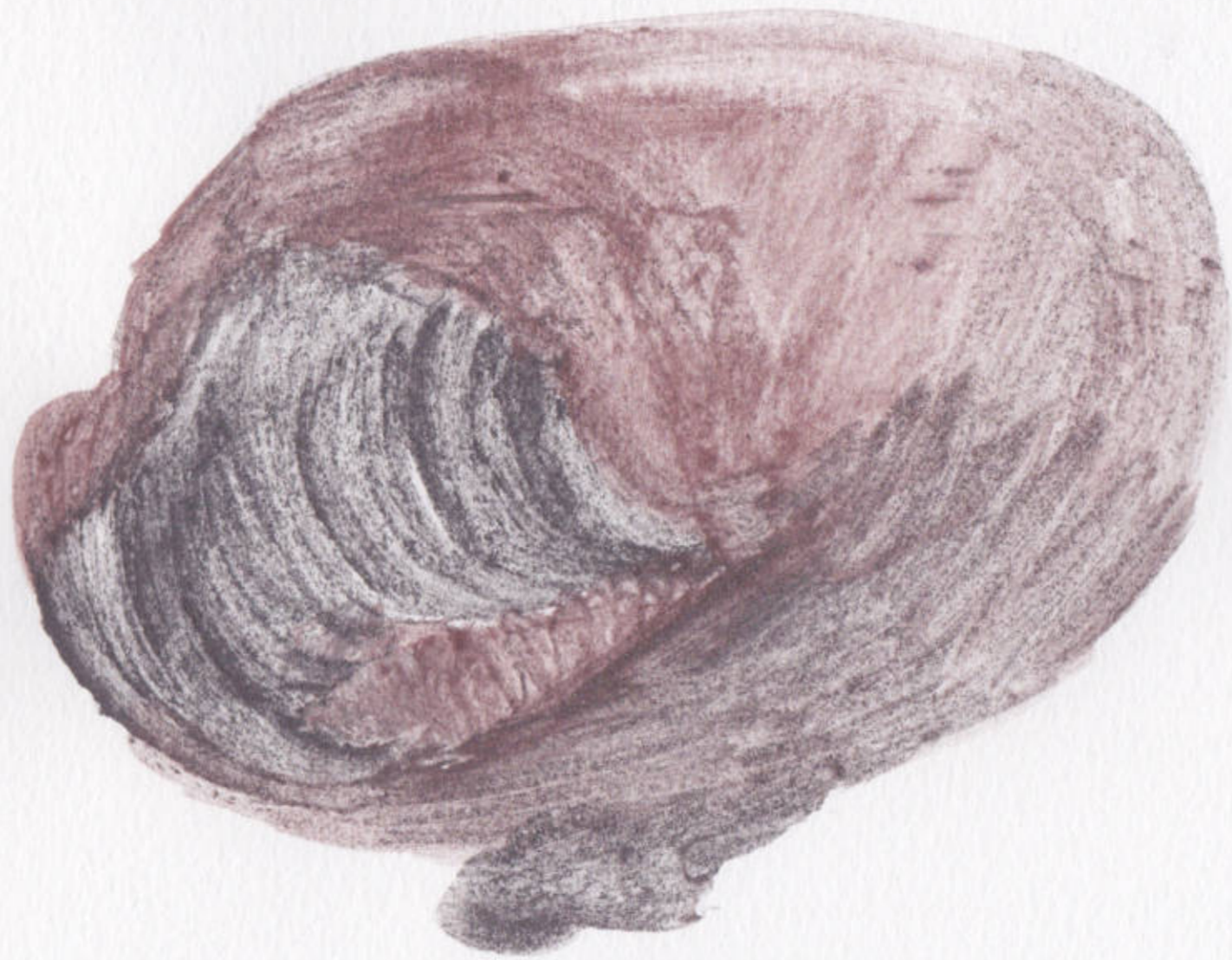
2019 I.J. Choi





studies on Red Lump 22

2019 I.J.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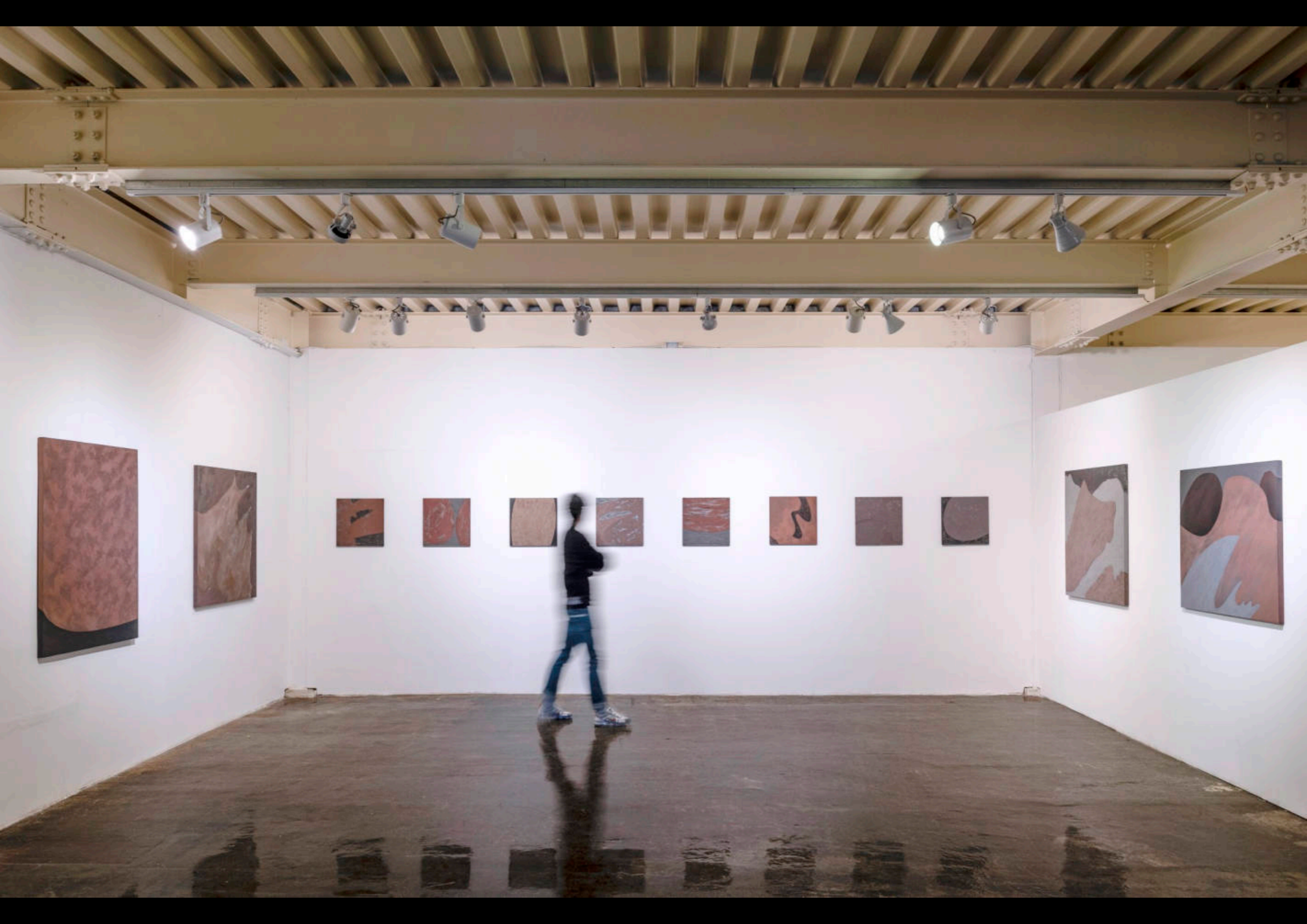


studies on Red Lump 29

2019 I.J.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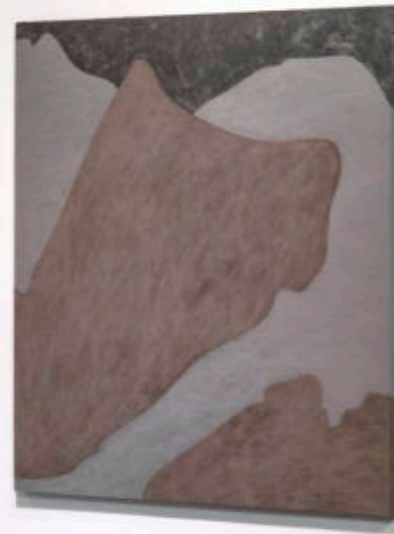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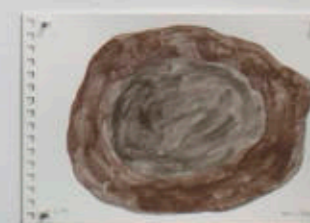
Exhibition Foreground













근작 <붉은 덩어리>시리즈는 판을 직접 긁어내야 하는 동판화의 메조틴트(Mezzotint)의 거칠지만 세밀한 표현처럼, 언뜻 먹의 농담으로 표현한 수묵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금속 고유의 색을 가진 철, 구리, 알루미늄의 분말들이 서로 겹치며, 상처의 치유와 회생의 과정을 그리고 지우듯 반복적으로 중첩된다. 그 내부에서 뻗어져 나오는 힘은 작가의 ‘보이지 않는 힘’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작가는 내면으로부터 파생된 감정을 매개로 그 흔적을 새긴다. 이는 본인 신체의 작은 상처로부터 시작한 내면의 불안과 초초, 이질감과 같은 주관적인 감정을 그리고 있는 추상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진 내면의 감정들을 객관화시켜 보는 이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붉은 덩어리로 표현된 내외면의 깊고 어두운 감정의 다양한 굴곡들은,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순화되고 정화된 듯 한층 더 정돈되어 있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외부의 상처가 아물 듯, 본인이 겪은 감정들을 대상화 시켜 들여다보며 일종의 치유의 과정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로써 작가는 외면했던 감정과 상처를 드러내고 주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 추상과 형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집중된 작가의 생각들은 가장 작고 부피감이 없는 금속안료의 색감과 질감이 응축되어 감정에 투사되고, 이는 회화적 드로잉으로 내면을 일깨우고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작가의 작업은 금속이면서 벽에 걸리는 평면회화로서 금속과 회화,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현대공예의 확장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금속을 재료로 한 점에서는 공예의 범주에 닿아있으면서도 평면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지점은 회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입체기물에서 보여준 플라즈마 드로잉이 조형작업의 부속적이고 장식적인 역할로 다가왔다면 평면작업으로 확장된 작품들은 회화적 표현을 증폭시켜준다. 이러한 조형에서 평면으로의 표면적 변화 속에서, 여전히 최일준은 금속이라는 하나의 재료에 집중하여 반복하고 흔적과 자국을 남기는 행위, 그 물성에 남아있는 손이 지나간 흔적들을 통해 작가의 몸에 스며든 공예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동일해보이지만 만들어가는 방식, 보이는 태도의 차이가 선사하는 감흥은 이 때문이 아닐까.

— 도화진

The recent <Red lump> series resembles a rough but delicate expression of mezzotint as in etching where you have to scrape the plate directly, or the expression of ink shades as in ink paintings. Iron, copper and aluminum powder, having their own inherent color of metals, are repetitively overlapped as if the artist is drawing and erasing the process of healing and revival of a wound. The strength reaching out from it is also linked to the artist's "unseen power." The artist leaves the mark of his emotions rooted inside him. The work looks like an abstract drawing depicting rather subjective emotion that starts from the artist's little scar on his body, but it also resonates with the audience in a way that makes them to look into their emotions objectively. The red lump which embodies the ups and downs of deep, dark emotions is refined and purified as the artist draws and writes away his emotions. It seems that the process of objectifying and observing the artist's emotion has worked as a therapeutic experience, just like wounds heal up naturally as time passes. What the artist is trying to do is to bring his emotion and wounds, which he previously turned away from, to the spotlight. Crossing the border between abstract and figurative the artist's ideas are projected to condensed colors and textures of particles of metal pigments. This pictorial drawing attempts to speak to the audience and wake their inner feelings.

As a metal work that is also a painting that can be hung on the wall, the artist's work implies how contemporary craft can tear down the border between metal and painting, and between 2D planes and 3D structures. While the work falls under the category of metal craft because of its material, it also leans toward painting in regards to its flat tendency. Compared to the rather decorative role that plasma drawing played in his early sculptures, the current work which is extended to painting serves as amplifier to pictorial expression. During this transition from sculpture to painting, Iljun Choi remains to concentrate on single material, metal. Through his act of repetitively leaving the marks on metal, and through the traces left by hand on the material, we can read the craftsmanship incorporated in the artist's body.

— Hwajin Do (Translation — Gaeun Park)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From Unseen Power

201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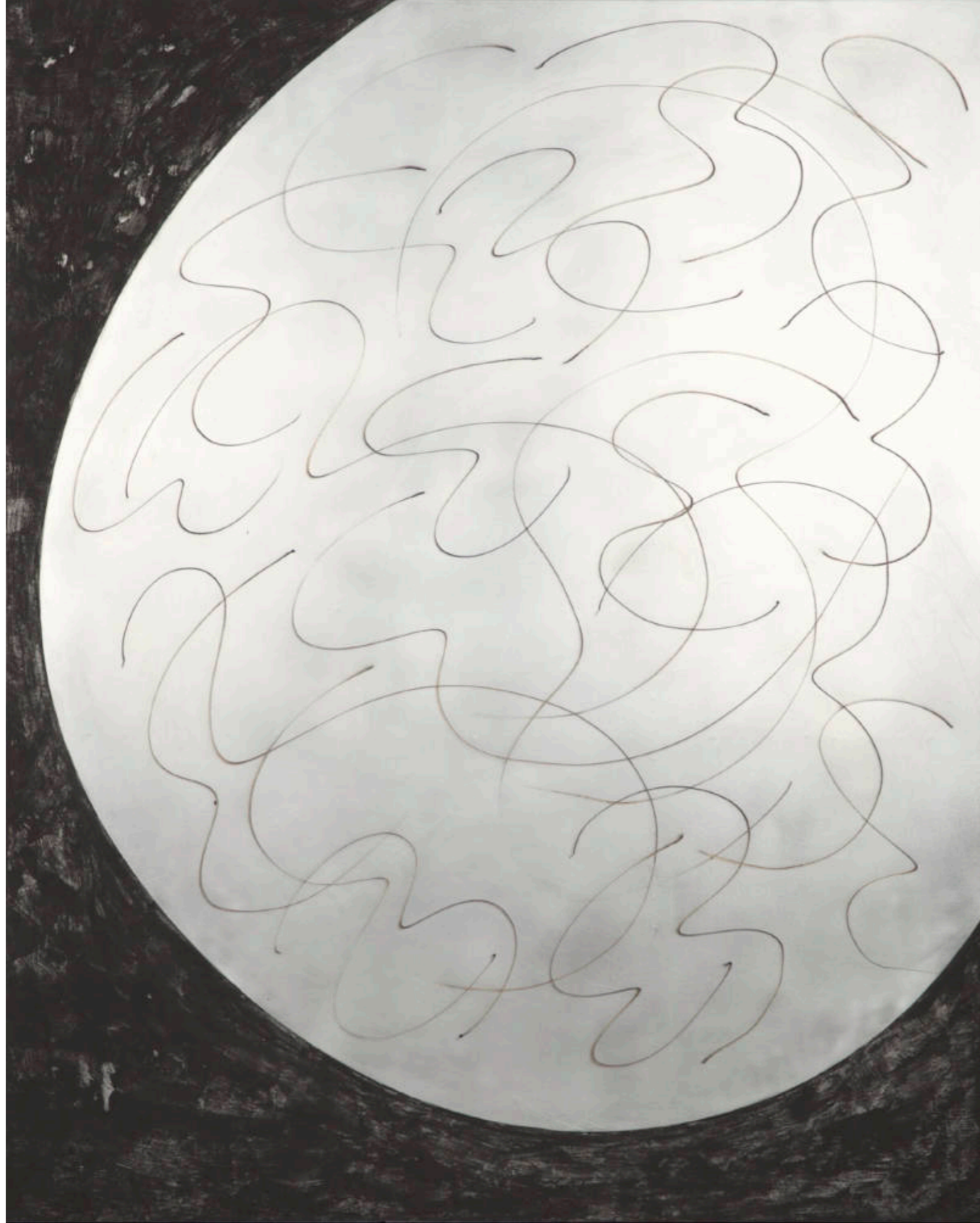


##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매료된다. 그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힘의 형상이기보다는 대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응축된 힘이다. 바다를 예로 든다면 힘차게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의 모습보다는 바다의 육중한 무게와 부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시선을 끌어들이는 짙은 색감, 뒷걸음질 치게 하는 기세와 그 속으로 뛰어들고 싶게 하는 충동 등이 모여 감당하기 힘든 힘을 느끼게 한다. 내면의 표출이 담긴 나의 드로잉들, 아이들의 움직임과 소리들, 고인돌과 같은 유적들은 이러한 힘을 느끼게 한다. 그 힘은 아우라와 같이 고고한 분위기나 기운이 아닌 당장 표출되지 않더라도 언제든 꿈틀거리며 뿔어져 나올 수 있는 응축된 생명력과 흡사하다. 보이지 않는 힘은 다양한 것으로부터 느낄 수 있지만 그 인상은 하나로 남았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연작>은 보이지 않는 힘의 인상을 표현한다. 보이지 않는 힘은 항상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 어딘가에 있다.

## From Unseen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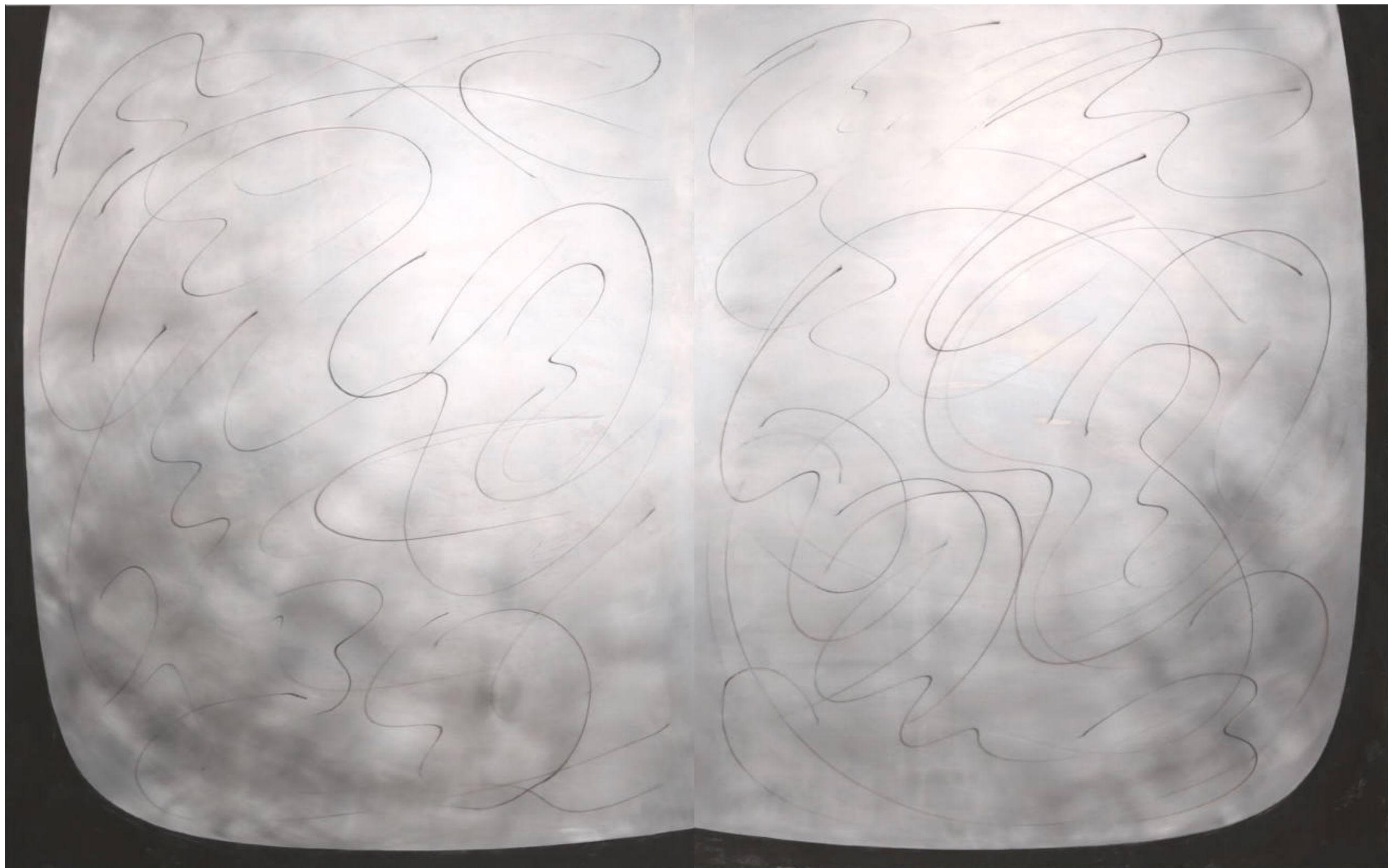
I am fascinated by something with power. The power is inherent in the object rather than the shape of the force appearing on the surface. Taking the ocean as an example, it is not the appearance of a broken wave strongly hitting a cliff, but the weight and size of the sea with its waves, the dark color that draws gaze in invisible places, the force to retreat and the impulses that jump into it gather to make me feel unbearable. In my drawing containing the expression of the inner side, the motions and sounds of children, ruins like Dolmen make this feeling. The power that I feel is not a noble atmosphere or aura like an aura but is similar to the condensed life force which can blow out at any time even if it is not exposed immediately. The unseen power can be felt from a variety of things, but the impression of it remains as one. My works express the impression of unseen power. Depending on the viewer, for this reason, it can be seen in a variety of subjects ranging from the moon, the wind to ultrasound pictures of a fetus even. The unseen power is always in someone and in something and at somewhere.



From Unseen Power 1  
iron powder(Fe 99%), plasma drawing on stainless steel  
938x116.8cm, 2018



From Unseen Power 2  
iron powder(Fe 99%), plasma drawing on stainless steel  
938x116.8cm, 2018



From Unseen Power 3

iron powder(Fe 90%), plasma drawing on stainless steel, 187.6x116.8c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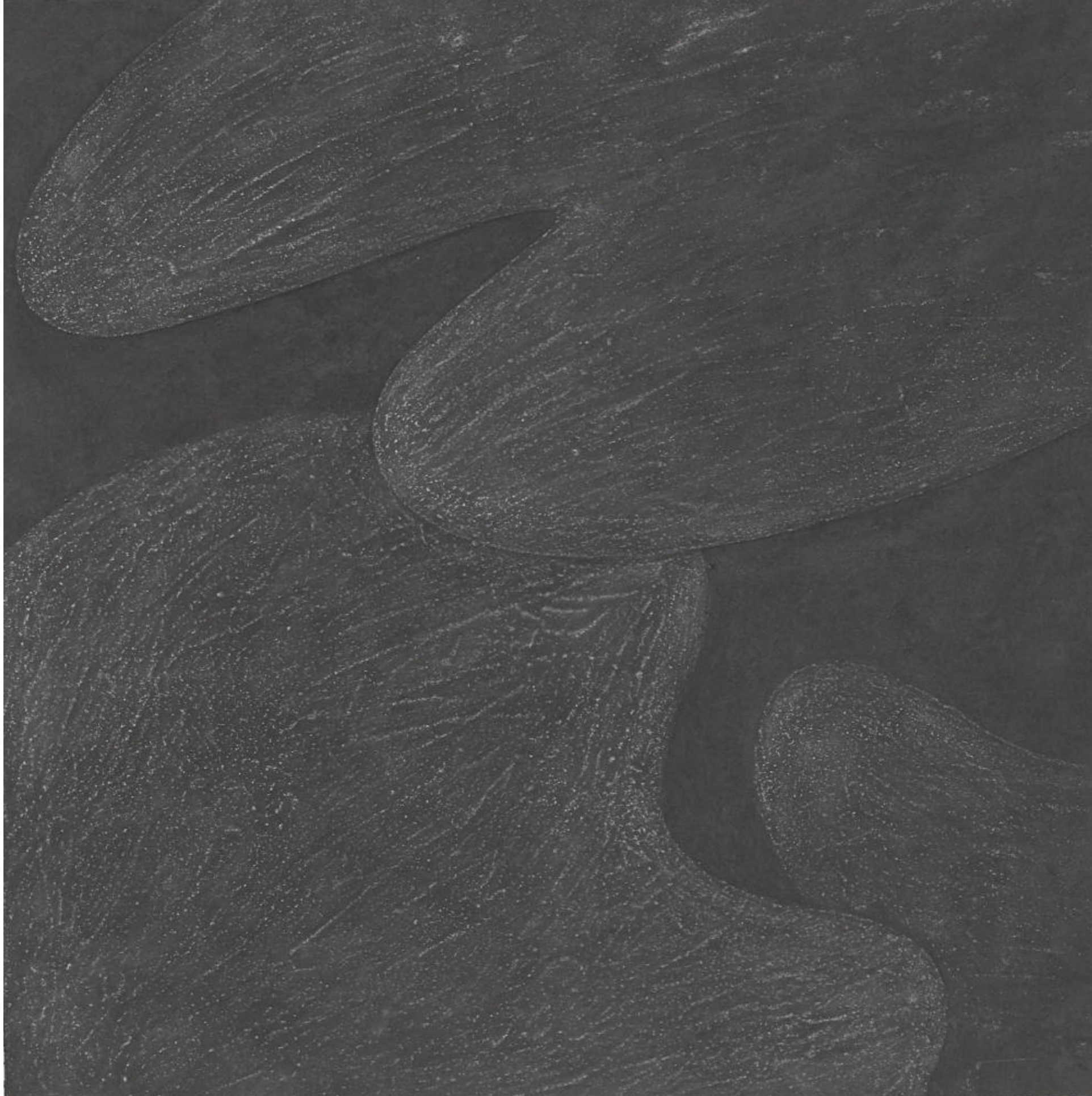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드로잉의 개념과 표현은 많은 변화와 확장을 거듭해왔다. 19세기 이후 앙리 마티스의 가위 드로잉, 파블로 피카소의 라이트 드로잉과 같은 새로운 도구를 이용한 드로잉이 등장하면서 드로잉의 표현이 다양해졌다.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를 시작으로 1960년대 이후 개념 미술이 쏟아져 나오며 따라 솔 르윗의 개념적 드로잉에서부터 매튜 바니의 구속의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현대 미술에서 드로잉의 개념은 무한히 확장되어 규정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해졌다.

작품의 특징인 음각의 선들은 플라즈마 절단기를 드로잉 도구로 활용한 표현(이하 플라즈마 드로잉)이다. 나는 드로잉의 개념과 표현이 확장되어온 미술사 속에서 플라즈마 드로잉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고찰해왔다. 이는 플라즈마 절단기라는 새로운 도구를 활용한다는 점과 컴퓨터화를 통해 머리와 손이 분리된 개념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9세기 이후 등장한 확장된 드로잉 표현의 맥을 잇고 있다.

The idea and expression of drawing has constantly changed and extended throughout history. After 19th century, the expressions by drawing have become more diverse with the emerge of new drawing tools such as Henri Matisse's drawing with scissors and Pablo Picasso's drawing with light. Starting with Marcel Duchamp's readymades conception art flooded since 1960's. From Sol LeWitt's conceptual drawing to Matthew Barney's Drawing Restraint, the idea of drawing in modern art has now expanded infinitely, making it is almost impossible to define.

An intaglio line which is a feature of my works is an expre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lasma drawing) utilizing a plasma cutting machine as a drawing tool. I have contemplated what kind of meaning the plasma drawing may hold in the context of art history where the concept and expressions of drawing have been expanded. It has been connected to the expanded drawing expression that emerged since the 19th century in that it utilizes a new tool plasma cutting machine, and it is possible to express conceptually with head and hands separated through computer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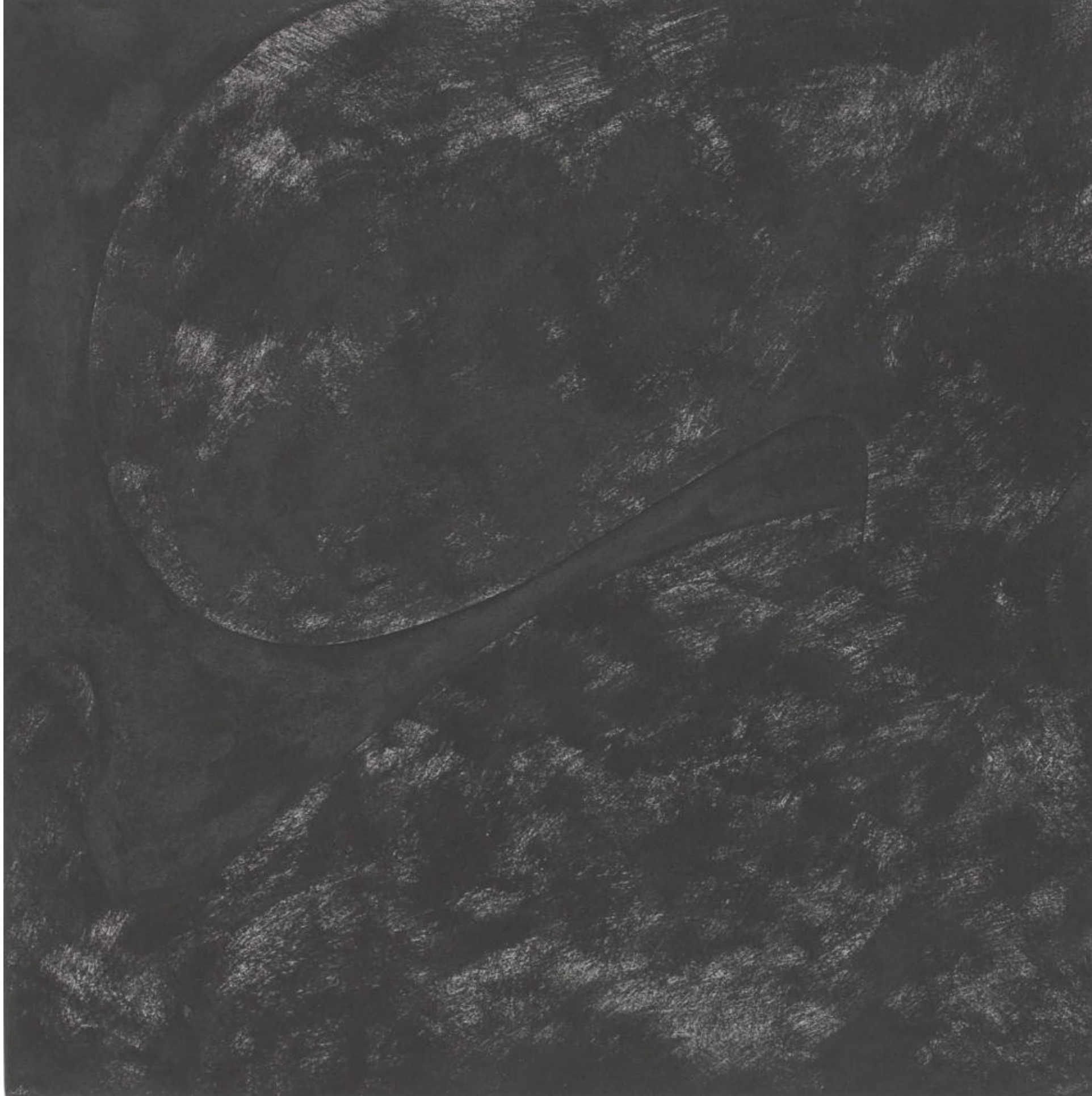
Studies on Unseen Power 11  
iron powder(Fe 99%)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8



Studies on Unseen Power 8  
iron powder(Fe 99%)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8



Studies on Unseen Power 5  
iron powder(Fe 99%)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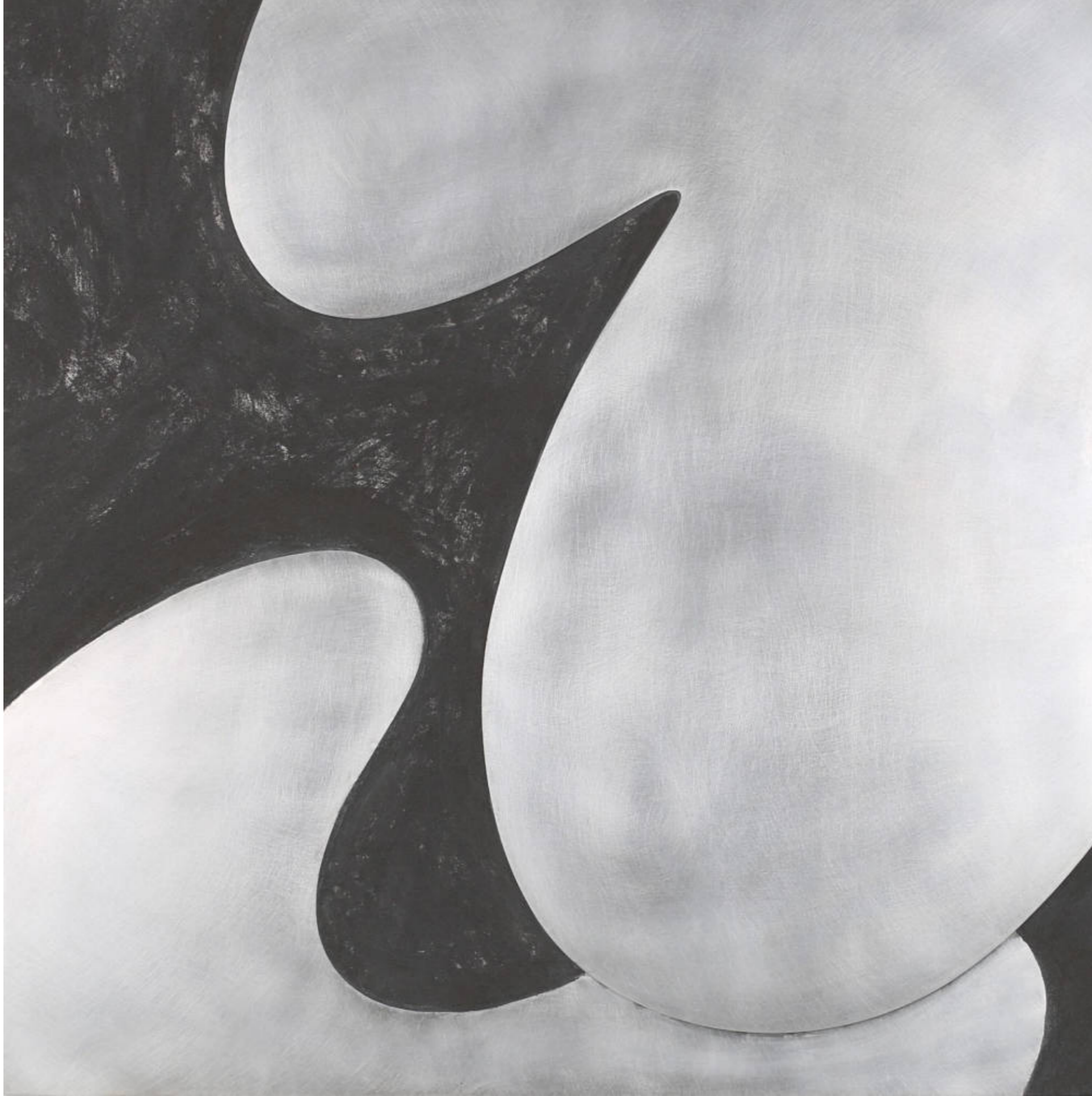
Studies on Unseen Power 10  
iron powder(Fe 99%)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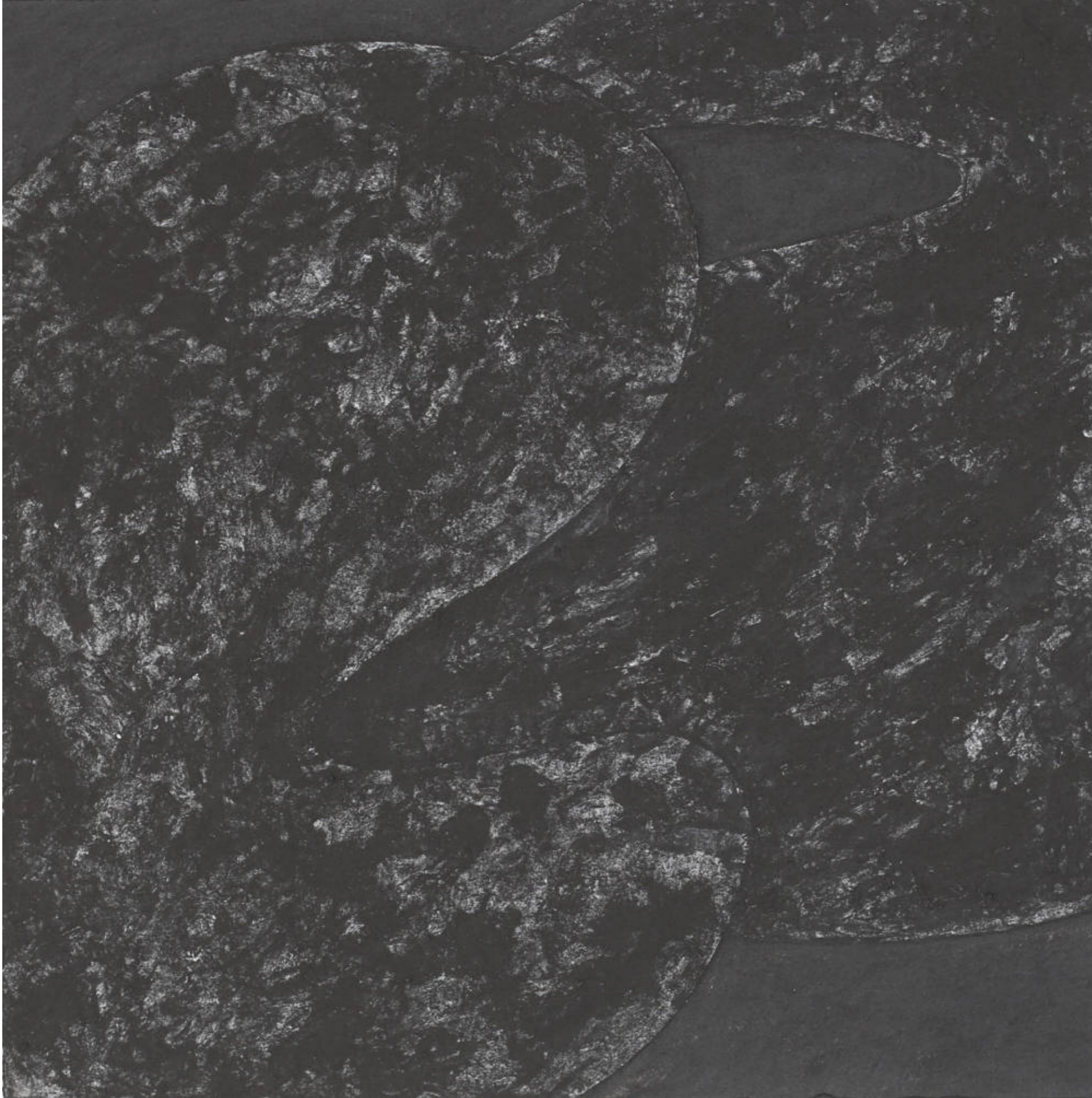
Studies on Unseen Power 3  
stainless steel powder, acrylic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8



Studies on Unseen Power 4  
iron powder(Fe 99%), acrylic,  
mixed materials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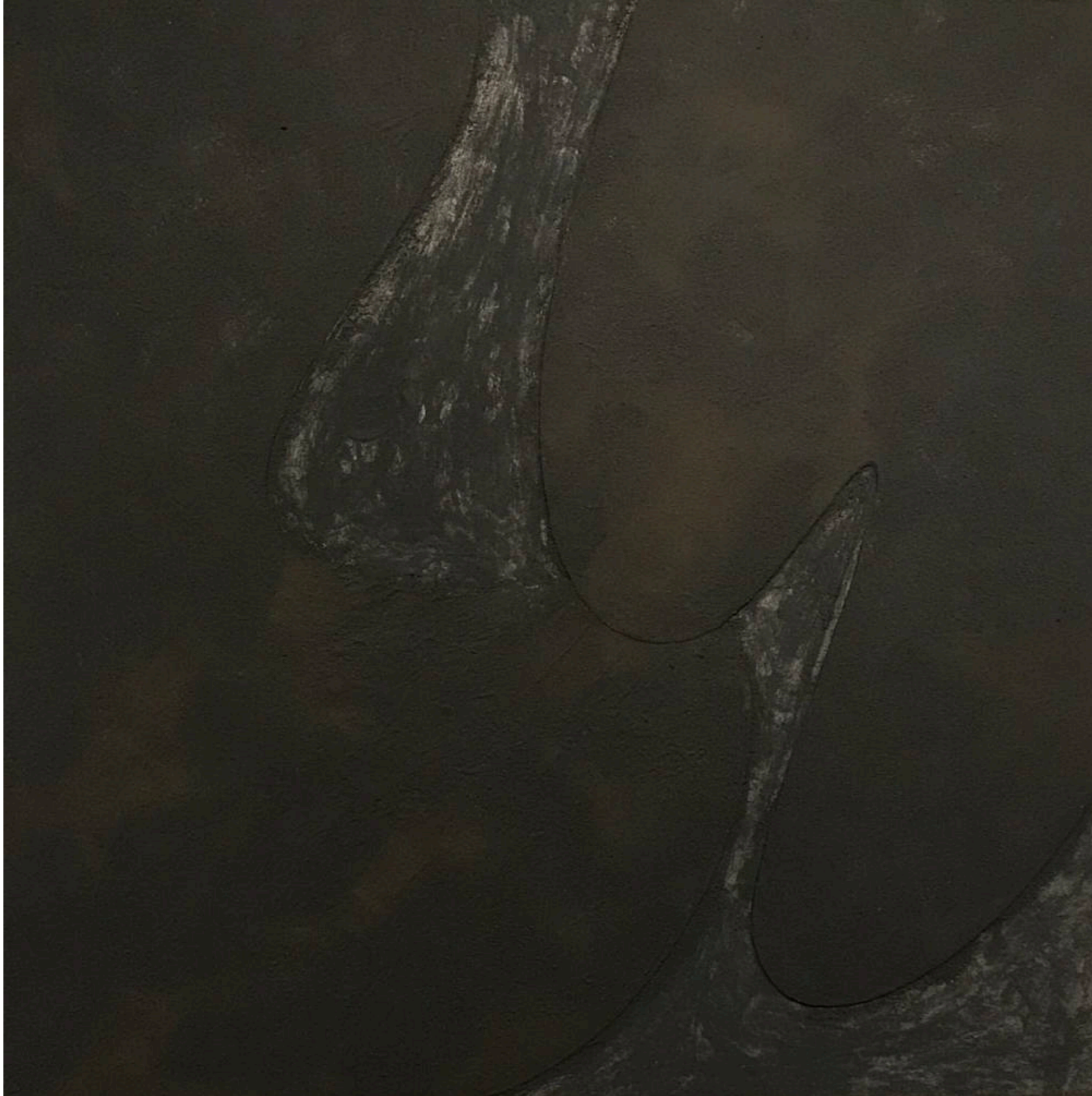


Studies on Unseen Power 9  
iron powder(Fe 99%)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8



Studies on Unseen Power 12  
iron powder(Fe 99%), oil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8





Studies on Unseen Power 7  
iron powder(Fe 90%)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8



Studies on Unseen Power 13  
iron powder(Fe 99%) on stainless steel  
42x42cm, 2018



Drawing on the Night

steel, 49x49x223cm, 2016

(18th Korean Crafts Contest\_be selected, Iksan, South Korea)



Drawing on the Night

steel, 49x49x223cm, 2016

(18th Korean Crafts Contest\_be selected, Iksan, South Korea)



Drawing in the Ocean

steel, stainless steel

38x32x116, 42x39x94, 42x37x136cm, 2017

(10th Cheongju Craft Biennale\_Finalist, Cheongju , South Korea)



Drawing in the Ocean

steel, stainless steel

38x32x116, 42x39x94, 42x37x136cm, 2017

(10th Cheongju Craft Biennale\_Finalist, Cheongju , South Korea)



Drawing Beside the Window  
silver plated steel, 8.8x8.8x23cm, 2016  
(18th Silver Triennial, Hanau, Germany)



Drawing on the Primitiveness, steel, dimension variable, 2017



전시 전경

Exhibition Foreground



##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FROM UNSEEN POWER

최성준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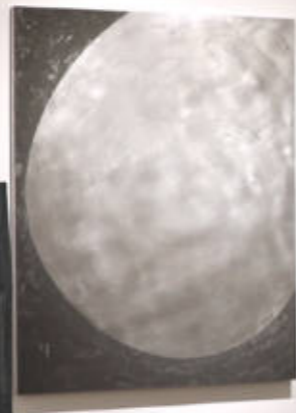
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 생각한다. 그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  
일상적이거나 대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은유적인 힘이다.

바다를 배로 건너면 짐차게 일찍이 부딪치 부딪치는 파도의 모습보다는  
바다의 유동한 무게와 부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시선을 끌어들이는 깊은  
색감, 뒷걸음질 치게하는 기세와 그 속으로 뛰어들고 싶게 하는 종종 풍이  
모여 감당하기 힘든 힘을 느끼게한다. 내면의 표현이 일견 나의 드로잉들,  
아이들의 움직임과 소리들, 고인들, 마추피후와 같은 유체들은 이러한 힘을  
자니고 있다. 그 힘은 아무런 것 없이 고요한 분위기나 거침이 아닌 일상  
요구되지 않더라도 언제나 뿔뿔거리며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은유적 생명력과  
중시된다.

내가 추구하는 표현 목적을 표현시스 해미언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궁극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느낀 힘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 형태와  
드로잉을 통해 이를 표현하고 생각하고 있다.

작품의 특징인 감각의 선들은 콜라주와 절단기를 드로잉 도구로 활용한  
표현이후 콜라주와 드로잉이다. 수침이 비교적 용이한 금속 작업의 성격과  
달려 콜라주와 드로잉은 한번 금속 위에 표현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절단(절단-斷斷)의 정신은 내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절단과 공들여 만든 금속 작업에 수정할 수 없는 선을 과감하게  
그리는 일은 매우 어렵다. 자유롭기보다는 마음의 정결과 불의 위험이  
일한다. 이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서는 기술의 숙련도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콜라주와 드로잉은 나에게 수(手), 공(功), 능(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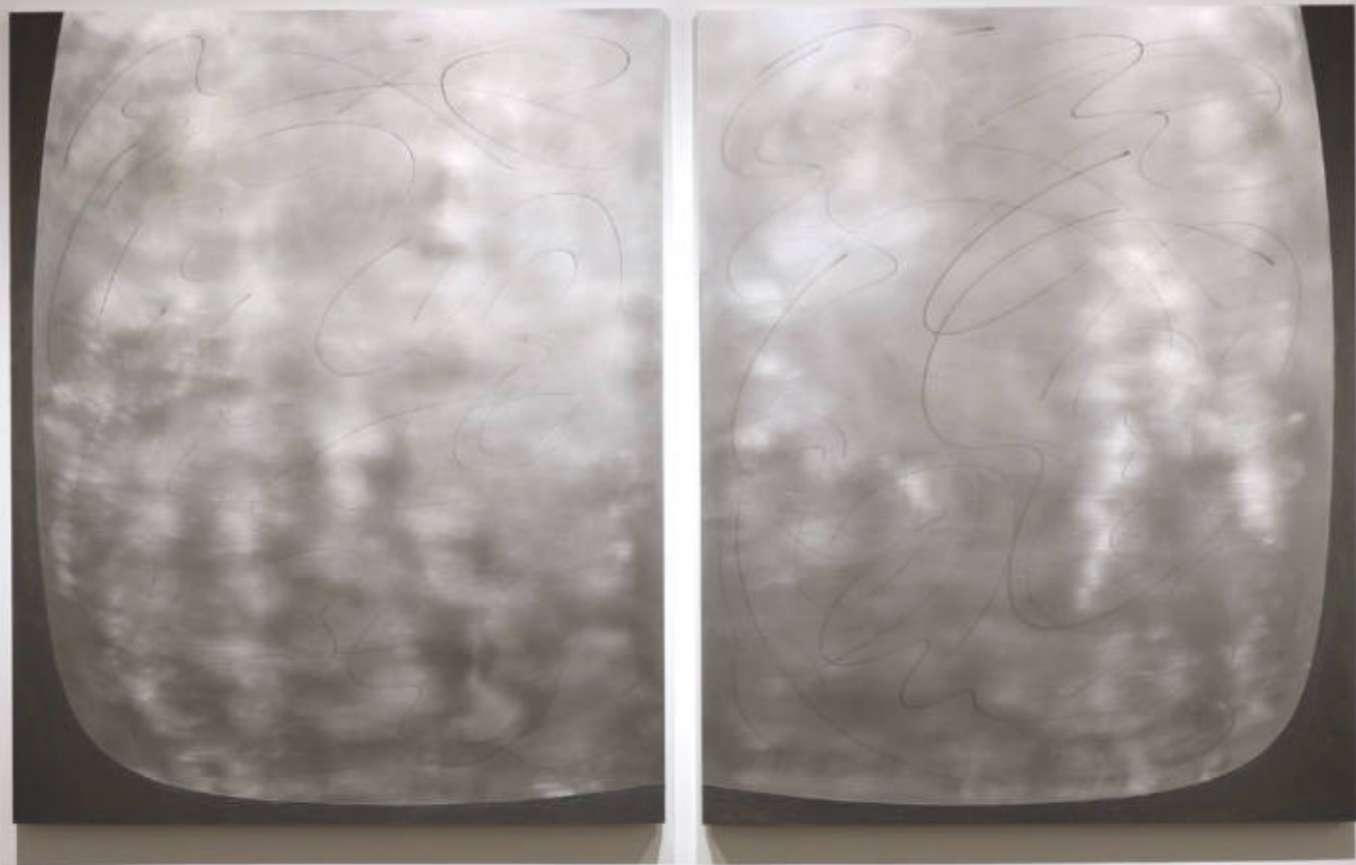
작가 노트 중에서



WIKI: TO  
KINEM UNCLE  
AND THE







파울 클레(1879~1940)는 1920년 저서 『창조적 신조 Creative Credo』에서 “예술이란 눈에 보이는 것의 재현이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최일준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연작’은 내면의 낮고 긴 대화에 귀 기울이게 한다. 단단한 형태를 깨는 선들이 엮여, 보다 깊은 울림을 만드는 깊이를 만들어 낸다. 작가는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대상의 아름다움이나 소재의 전달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응축된 힘과 생명력에 대한 호기심을 조심스럽지만 힘 있게 전달한다. 찬찬히 응시해보면, 그의 드로잉은 마치 무중력을 떠다니며 선들이 부유하는 듯 보는 이의 시선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이끈다.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감각으로 자신 안에서 펼쳐지는 감수성 가득한 세계를 금속판 위에 새겨 넣는다. 화면을 가득 채운 선의 강약과 그 흐름은 평면이 마치 공간적 깊이를 가진 것처럼 미묘하다. 일반적 드로잉과 달리 묵직하고 딱딱한 금속판 위에 음각의 선이 만들어 낸 경계들이 고요 속 잔잔한 바다를 울리는 파도와 같다.

작가의 플라즈마(Plasma) 드로잉은, 익히 금속 위 장식이나 드로잉을 위해 조각도를 이용하는 조금기법 또는 인그레이빙(Engraving)과 다르다. 플라즈마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류량, 속도, 각도에 따라 음각의 드로잉으로 치환되는데, 작가에 따르면 그려지는 바탕과 손 사이의 허공의 공간을 통해 손으로 직접 드로잉을 하면서도 손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촉각 외에 ‘공간 지각적 감각’이 함께 요구된다고 한다. 수정이 가능한 회화 작업과는 다르게 금속이라는 물성은 한번 획을 그으면 수정이 불가하여, 한 선을 그을 때의 숨을 참고 내뿜는 호흡의 과정은 몹시 까다롭고도 큰 용기가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금속의 고정불변의 물성과는 반대로, 작가의 성향과도 같은 자유스럽고 순간적이며 즉흥적인 표현이 가능한 드로잉이 기술적이고 형식에 관한 실험과정을 거쳐 발현된 결과물이다.

— 도화진

Paul Klee(1879~1940) once wrote in his book 『Creative Credo(1920)』 : “Art does not reproduce what we see; rather, it makes us see.” Iljun Choi’s ‘From Unseen Power’ series makes the audience listen to their humble and small voice within. Weaved lines dismantle the rigid form and creates a depth for a deeper echo. The artist cautiously, but with strength, delivers his curiosity about the condensed power and vitality that lies inside, rather than the beauty or material of the exterior. If you carefully stare at his drawings, it seems as if the lines are floating in a weightless state. They softly but also strongly catch the attention of the viewer. With his impromptu and spontaneous sensibility he engraves his emotion and inner world on the metal plate. Filled with dynamics and flows of lines, the plane canvas is given a subtle feeling of spatial depth. The unusual drawing- lines engraved on a solid, thick metal plate resembles the waves that wakes the quiet sea.

The artist’s plasma drawing is different from chasing or engraving technique which is usually used for decorating or drawing on the surface of the metal. By controlling the current, speed and angle of a plasma cutter the artist creates an engraved drawing. According to the artist, plasma drawing requires ‘spatial perception’ as much as cutaneous perception, because it is drawing on the empty space between the hand and the surface. Unlike paintings that are modifiable, the nature of metal makes the work unchangeable once a stroke is made. The process of holding the breath and letting it out while drawing must have made the work very challenging and daring for the artist. Contrary to the nature of metals, the free, spontaneous and improvised drawing which resembles the artist’s personality is the output of the artist’s experiment on techniques and 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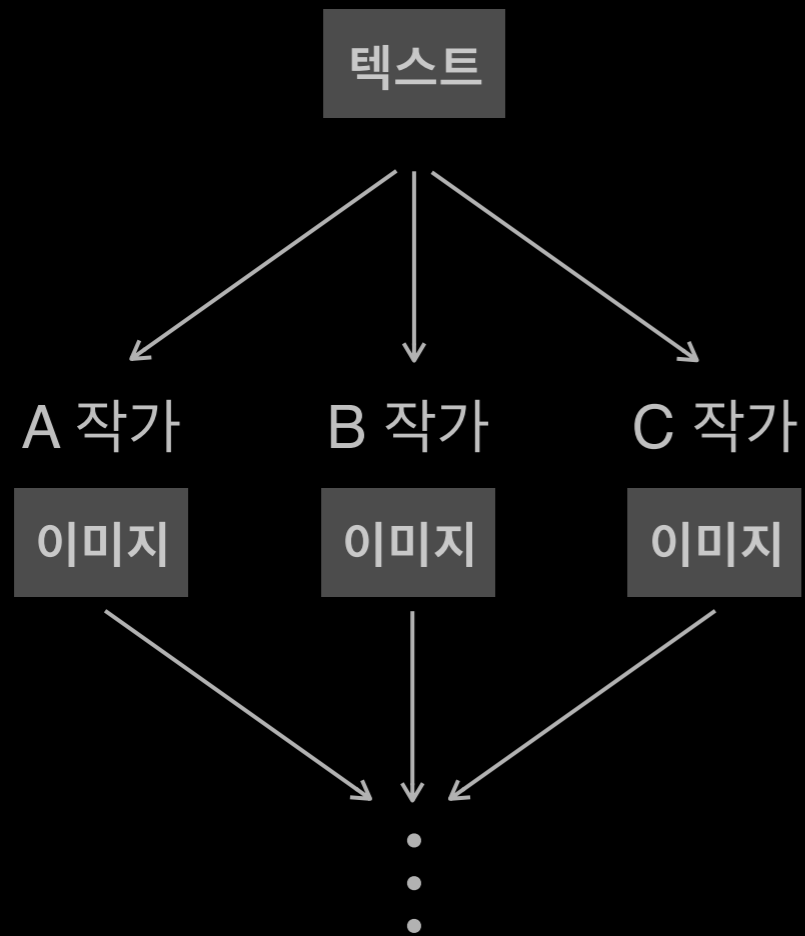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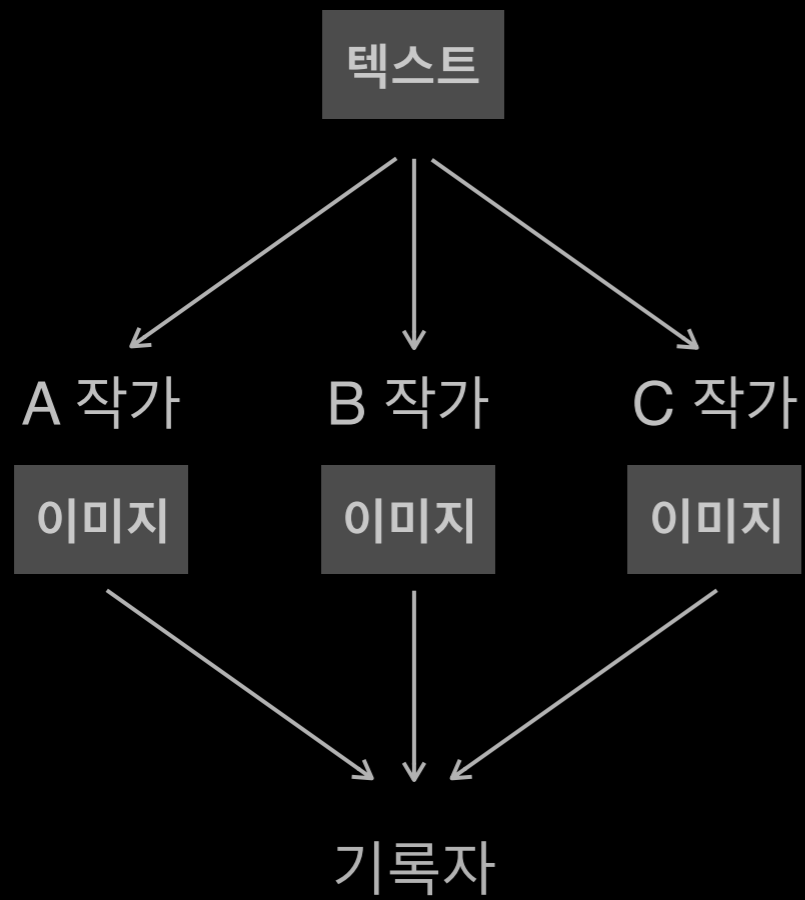
— Hwajin Do (Translation — Gaeun Park)



협업 프로젝트  
Cooperation Project

앤-온-콘택트 N-ON-Contact  
병풍풍경 Screen Scene  
문화의 드로잉 Drawing on the Culture

2017 - 2020



#### N-ON-Cont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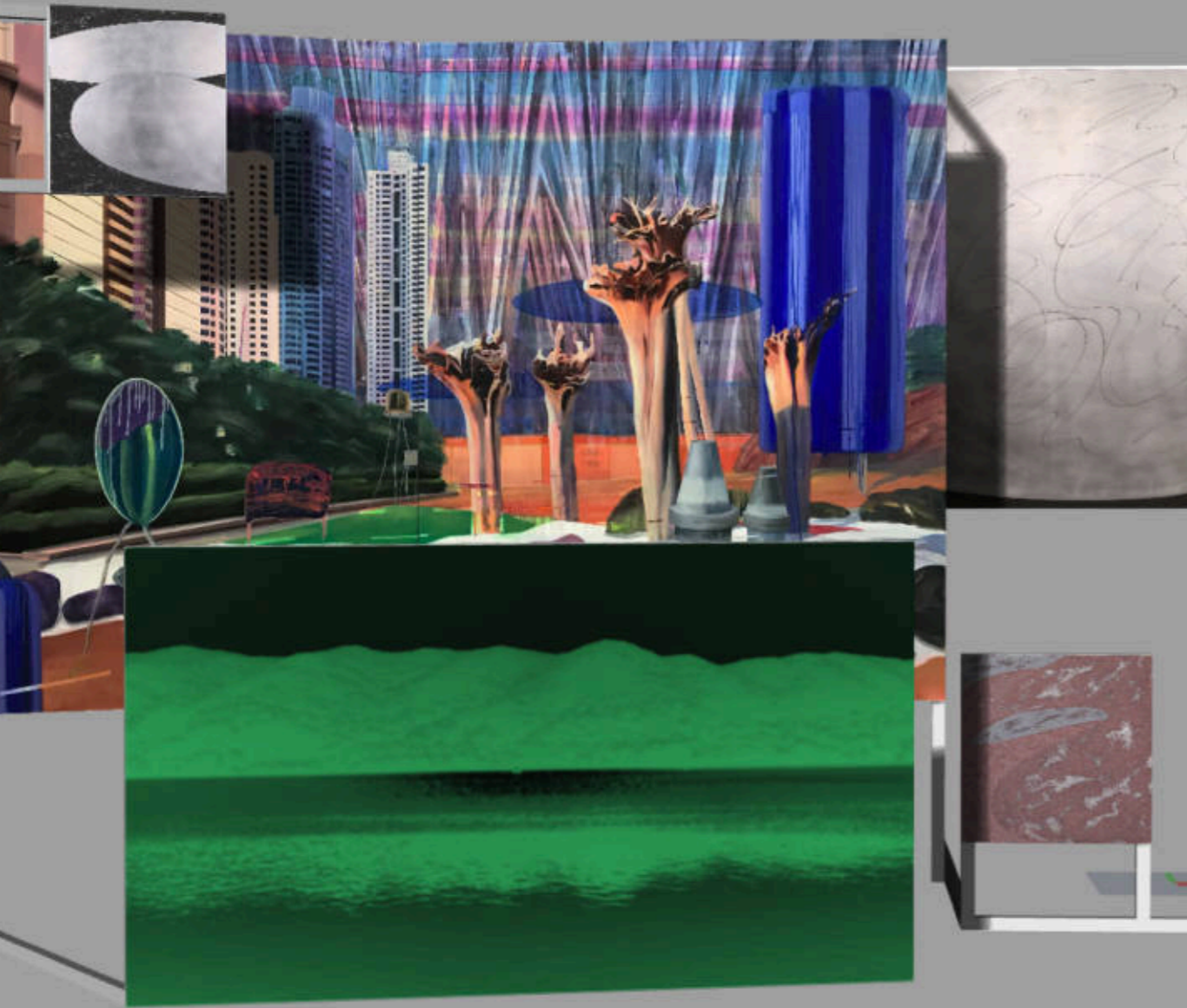
비대면, 비접촉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김하경, 김환, 최일준 세 명의 시각 예술가와 기록자 신현진은 시각 정보를 최대한 배제하고 텍스트만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공동 창작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먼지”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세 명의 작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미지를 창작하고 이미지들은 서로 공유되지 않은 채 기록자에게 전달되어 텍스트로 변환된다.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가들은 다시 이미지를 창작한다. 이 과정을 하나의 STEP으로 보고 이를 반복한다. 작품 <The Exit Contained Heavy White Water/Gas>는 4번째 STEP의 결과물로서 작업의 기반이 된 텍스트는 아래와 같다.

터널 속에 끝을 거의 다다랐다.(중략) 출구 밖은 무엇이 있는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출구는 묵직한 흰 물/기체를 머금고 있었다. 꽤나 습하고 축축했던 동굴의 바닥에는 했던 흰 기체가 축축한 바닥에 비쳐 보였다. 출구에서부터는 그리고 매우 미세하지만 소리 들려왔다. 언젠는 짧지만 길게, 어떨 때는 반복적인 스타카토로, 어쩔 때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긴 피음, 아니면 지나가듯 획획 내는 정말 미세하고 작은 소리들이 들렸다.

— 신현진 (기록자)



The Exit Contained Heavy White Water/Gas  
plasma drawing, Al<sub>2</sub>O<sub>3</sub> powder on stainless steel  
94x117cm, 2020



## 병풍풍경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 비장애인 예술가의 교류와 서울문화재단 소속 레지던시 금천, 신당, 잠실의 입주 작가 간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작가인 본인을 포함해 금천예술공장 입주 작가 신이피, 잠실창작아케이드 입주 작가 홍세진이 ‘병풍풍경’이라는 이름으로 팀과 주제를 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병풍풍경은 홍세진 작가의 ‘병풍과 풍경’이라는 작품 제목에서 출발하였다. 이 작품은 ‘풍경’이라는 실재하는 배경을 감각함에 있어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감각과는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는 작가의 특성을 인위적인 ‘병풍’에 투영하여 실재와 혼돈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이 작품을 통해 완전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끼는 위태로움과 불완전성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시선, 감각, 경험이 작가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고 재배열되는 작품세계라는 것은 결국 관찰자와 대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서로의 작품세계를 공유한 세 작가는 서로의 작업이 서로에게 병풍이자 풍경이 되기로 한다. 관람객은 이들의 작품이 놓인 관계의 자리에 들어가 마침내 그들의 병풍이자 풍경이 되는 경험을 함께 해볼 수 있다.

## Screen Scene

This project was started with the purpose of exchanging artists with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artists, and resident artists from the SFAC(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residency Geumcheon, Sindang, and Jamsil. Including me as a artist in Sindang Creativity Arcade, Ifie Sin in Geumcheon Art Factory and Hong Sejin Hong in Jamsil Creativity Arcade made a team and set a subject under the name of ‘Screen Scene’ and carried out this project. Screen Scene started from a artwork of Sejin Hong, “Folding Screen and Landscape.” The work is that reveals the image of reality and chaos by proj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 which is expressed in a sense different from the one considered to be natural in the sense of the natural background of landscape, to the artificial folding screens. Through this work, we discover that there is an artist's attention to the perils and imperfections that we all feel as if we are not perfect members of society. The meaning of the world of works in which the gaze, senses, and experiences are selected and rearrang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artist's point of view changes according to the observer and the object. The three artists who share each other's the world of work try works to be a screen and a scene to each other. Visitors can enter into the relationship of their works and finally experience their screen and screen.



Screen Scene, single channel video, steel, copper, aluminium powder on stainless steel, plastic, styrofoam, oil on canvas, dimension variable, 2019



## 문화에 드로잉

우리는 얼마만큼 같고 또 다른가. 한국과 페루,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또 어떤 차이와 다양성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했다. 다른 문화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문화의 차이를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느낀다. 일본의 식기들에서 작고 아담한 비율의 미와 정서를 느끼고, 미국의 간판들에서 역동성과 자유롭고 화려한 분위기를 느끼곤 한다. 작업의 재료가 되었던 한국의 화분과 페루의 화분은 각각의 오래된 문화를 축적하고 있었다. 한국의 화분에서는 첨성대의 단아함, 장구의 품을 느끼고 페루의 화분에서는 자연의 정취와 고대 문명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품은 두 종류의 화분은 서로 미묘하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현지인들과 함께 이와 같은 생각들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뜻깊었다. 언어가 달라 소통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호기심은 속 깊은 배려와 마음으로 답했다. 소통의 즐거움은 웃음으로 헤어짐의 아쉬움은 울음으로 나뉘었다. <문화에 드로잉>은 각국의 문화를 상징하고 또 그 공유를 표상한다. 이 공공외교 프로젝트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그 다름 속의 같음을 느끼며 우리 삶과 도시에 공기처럼 녹아 있어 인지하지 못했던 축적되어온 문화들에 대하여 조명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도시’이다.

## Drawing on the Culture

How much are we same and different. People who have lived in Korea, Peru, and other cultures have wondered what kind of homogeneity they can feel and how they can feel the difference and diversity. As we enter into other cultures, we feel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ltures, from the trivial ones. we feel the beauty and emotion of small and small proportions in Japanese tableware, and feel the dynamic and free and colorful atmosphere in American signboards. Korean flower pots and Peru flower pots, which were used as materials for the work, accumulated and accumulated their old cultures. In Korea, I could feel the elegance of Cheomseongdae and the goods of the ornaments and In Peru, I could feel the natural mood and the magnificence of ancient civilization. These two kinds of flower pots are both subtly and different. The process of producing a work was very clear, giving and receiving thoughts such as these together with the local people. Even in situations where the language was different and communication was difficult, the curiosity for each other was answered with deep consideration and heart. The joy of communication was shared with laughter and the pain of breaking up into tears. Drawing on the Culture symbolizes the culture of each country and expresses its sharing. This public diplomacy project is “our new city” that shares the cultures of each other, feels the difference in our lives, and illuminates the accumulated cultures that our lives and cities have melted like air.



Drawing on the Culture, plastic and rubber flower pots from Korea and Peru, dimension variable, 2017  
(possession of work at the Trujillo City Hall, Peru)

작가 약력

Artist CV



## 최일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금속공예전공 졸업(MFA)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금속공예전공 졸업(BFA)

## 개인전

2022 Initial Phase, HPIX 도산, 서울

2020 Wallow, 쇼엔텔, 서울

2019 붉은 덩어리, CICA 미술관, 김포

2018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갤러리 Bing, 서울

## 주요 단체전

2021 Circuit Seoul, 무신사테라스, 서울

Rack Focus, ADM, 서울

2020 스테레오 비전,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서울

Therapeutic Agent, Kote, 서울

2019 Squares 2019 국제전, CICA Museum, 김포

멀티탭: 감각을 연결하기, JCC아트센터, 서울

청주 공예 비엔날레, 청주

Box Cars, Pocosin Arts Gallery, 콜롬비아, 노스캐롤라이나주, 미국

Lines of Thought 2019 국제전, CICA Museum, 김포

비약적 도약, 송원아트센터, 서울

도구 · 구현 II, KCDF갤러리, 서울

손과 머리로 서다, 우석갤러리, 서울

003 아뜰리에, 003 아카이브, 서울

2018 23.1 제곱미터, S Factory, 서울

Villa D`Art Festival, 예술의 전당, 서울

케이크 포-크, 토-크, 문화공간 숨도, 서울

Inhorgenta, Messe München, 뮌헨, 독일

2017 한일 크리에이터 교류 프로젝트 초대전 공감, 일본문화원, 서울

제18회 실버트리엔날레 순회전

,The German Goldsmiths' House, 하나우, 독일

,Museum voor Edelsmeedkunst, Juwelen en Diamant, 엔트워프, 벨기에

,Sil-berwarenmuseum Ott-Pausersche Fabrik, 슈베비슈그뤼넨트, 독일

,Yachting Heritage Centre, 프렌스부르크, 독일

,Museum Zons, 도르마겐, 독일

2017 우리들의 새로운 도시, 페루, 트루히요

손의 일과, 아트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향유공예\_향(香, 취향에 취하다), 씨알컬렉티브, 서울

향유공예\_유(有, 유용한 일상), 산울림 아트엔크래프트, 서울

한국-이란 교류전, 테헤란, 이란

## 수상 및 선정

2020 쇼엔텔 오픈콜 6인 작가 선정, 쇼엔텔, 서울

2019 제10회 청주공예비엔날레 공모전 Finalist, 청주

CICA Young Korean Artists 2019 작가 선정, CICA Museum, 김포

Lines of Thought 2019 국제전 작가 선정, CICA Museum, 김포

Squares 2019 국제전 작가 선정, CICA Museum, 김포

2018 최초예술지원(발표형) 시각예술 작가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제13회 국제 공예트렌드페어 창작공방관 선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

2017 최초예술지원(준비형) 시각예술 작가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공공외교 프로젝트 작가 선정, 대한민국 외교부, 서울

제18회 한국공예대전 입선, 익산, 대한민국

제18회 실버 트리엔날레 국제공모전 입선, 골드스미스하우스, 하나우, 독일

한일 크리에이터 교류 프로젝트 1기 작가 선정, 인페인터글로벌, JNTO(일본정부관광국), 서울

## 레지던시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9-11기

## 공공 작품 소장

트루히요 시청, 페루

Iljun Choi

MFA Seoul National University, Metal Crafts Graduate School, Seoul, South Korea

BFA Seoul National University, Metal Crafts, Seoul, South Korea

#### Solo Exhibition

2022 Initial Phase, HPIX Dosan, South Korea

2020 Wallow, Show and Tell, South Korea

2019 Red Lump, CICA Museum, Gimpo, South Korea

2018 From Unseen Power, Gallery Bing, Seoul, South Korea

#### Selected Group Exhibition

2021 Circuit Seoul, Musinsa Terrace, Seoul, South Korea

Rack Focus, ADM, Seoul, South Korea

2020 Stereo Vision, Seosomun Shrine History Museum, Seoul, South Korea

Therapeutic Agent, Kote, 서울

2019 Squares 2019 International Exhibition, CICA Museum, Gimpo, South Korea

Multi Tap: Connecting Senses, JCC Art Center, Seoul, South Korea

Cheongju Craft Biennale, Cheongju

Box Cars, Pocosin Arts Gallery, Columbia, North Carolina, U.S.A

Lines of Thought 2019 International Exhibition, CICA Museum, Gimpo, South Korea

Quantum Leap, Songwon Art Center, Seoul, South Korea

Tool · Materialization II, KCDF Gallery, Seoul, South Korea

Handstanding+Headstanding, Woosuk Gallery, Seoul, South Korea

003 Atelier, 003 Archive, Seoul, South Korea

2018 23.1 Square Meter, S Factory, Seoul, South Korea

Villa D'Art Festival, Seoul Art Center, Seoul, South Korea

Cake, Fork, Talk, Culture Space Soomdo, Seoul, South Korea

Inborgenta, München, Germany

2017 Creator Exchange Project\_Korea & Japan, Japanese Cultural Center,

Seoul, South Korea

18th Silver Triennial Touring Exhibition

,The German Goldsmiths' House, Hanau, Germany

,Museum voor Edelsmeedkunst, Juwelen en Diamant, ,Antwerp, Belgium

,Sil- berwarenmuseum Ott-Pausersche Fabrik, ,Schwäbisch-Gmünd, Germany

,Yachting Heritage Centre, Flensburg, Germany

,Museum Zons, Dormagen, Germany

2017 Nuestras Ciudades, Trujillo, Peru

Daily Work of Hands, Artspace-00Yeonhui, Seoul, South Korea

香有Crafts\_香(Preference), CR Collective, Seoul, South Korea

香有Crafts\_有(Useful), Sanwollim Art and Craft, Seoul, South Korea

Korea-Iran Exchange Exhibition, Tehran, Iran

#### Award & Selection

2020 Show and Tell Open Call Selected Artist, Artist run space Show and Tell, South Korea

2019 10th Cheongju Craft Biennale Contest Finalist, Cheongju, South Korea

CICA Young Korean Artists 2019, CICA Museum, Gimpo, South Korea

Lines of Thought 2019 International Exhibition\_Selected Artist, CICA Museum, Gimpo, South Korea

Squares 2019 International Exhibition\_Selected Artist, CICA Museum, Gimpo, South Korea

2018 13th Craft Trend Fair,

'Creative Workroom' selected, KCDF(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Seoul, South Korea

Support for Primary Art(exhibition section) - Selected Artist >, SFAC, Seoul, South Korea

2017 Support for Primary Art(research section) - Selected Artist, SFAC, Seoul, South Korea

Public Diplomacy Project\_Korea & Peru - Selected Artist,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Seoul, South Korea

18th Korean Crafts Contest - Selected, Iksan, South Korea

18th Silver Triennale International - Selected, Goldschmiedehaus Hanau, Germany

1th Creator Exchange Project\_Korea & Japan - selected artist,

INPAINTERGLOBAL, JNTO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Seoul, South Korea

#### Residency

Sindang Creativity Arcade 9-11th, SFAC, Seoul, South Korea

#### Public Collections

Trujillo City Hall, Peru